

## 창조원리 (創造原理)

### 서론:창조원리란 무엇인가? (序論:創造原理とは何か?)

창조원리는 인간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과 우주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빌딩을 지을 때 먼저 건축가가 어떤 빌딩을 지을지 구상하고 설계도를 그려서 건축합니다. 설계도에 따라 일정 기간에 기술과 재료를 투입하면 빌딩이 완성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존재세계는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창조되었는데, 창조원리가 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인생과 더 나아가 우주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 【翻訳】

創造原理は人間と宇宙を創造した神様の創造の設計図であると申し上げることができます。人生と宇宙を分かるためには神様を確かに分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例えばビルディングを造る時、先に建築家がどんなビルディングを造るのか構想して設計図を描いて建築します。設計図により一定期間、技術と材料を投じればビルディングが完成されます。

これと同じように存在世界は神様の設計図により創造されましたが、創造原理がその設計図だと言えます。したがって創造原理を正しく知ってこそ、私たちの人生と、さらに一步進んで宇宙に対して知ることが出来、人間と宇宙を創造された神様をはっきりと知ることが出来ます。

### 1) 잘 사는 법 (よく生きる法)

제품은 반드시 사용법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일수록 사용법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목적과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그 제품은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 100 볼트 전압에 맞추어 사용해야 하는 전자제품을 220 볼트 전원에 꽂으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물건은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용도가 결정되므로 수천 개가 생산되더라도 사용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듯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살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식으로 살고, 미국 사람은 미국식으로 살지만 살아가는 근본은 똑같습니다.

#### 【翻訳】

製品には必ず使用法があります。最新技術が適用された新製品であればあるほど、使用法の通りに使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目的と用途に外れるように使えば、その製品は壊れます。例えば100ボルト電圧に合わせて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電子製品を220ボルト電源にさせばあっという間に壊れます。物は工場で作られる時から用途が決定されるので数千個が生産されても使う目的は全く同じです。

私たちが物を目的に合うように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に、万物の霊長である人間も創造主である神様の創造目的の通りに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人は環境に適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韓国の人は韓国式で生きて、アフリカの人はアフリカ式で生きて、アメリカの人はアメリカ式で生きていますが、生きていく根本は全く同じです。

### 2) 잘 사는 인간, 못 사는 인간 (よく生きる人間、よく生きれない人間)

세상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물질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평가기준은 외모, 물질, 지식, 명예, 권력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면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규정한다면, 창조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창조원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호화롭고 윤택한 환경에서 살아도 창조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잘못 사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놓고 볼때 대부분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원리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

람으로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왕이다, 대통령이다, 수상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내적인 기준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에만 매달려 생활하는 사람은 마치고장 난 인간, 즉 중병 환자와 같습니다. 현실의 인간은 고장 난 사체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고장 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고장 나는 것처럼 오늘날 타락한 인간은 창조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지 그 방법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알고 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된 중환자인 셈입니다.

#### 【翻訳】

世の中では、良く生きるのか生きれないのかを物質を中心にして判断します。評価基準は容貌、物質、知識、名誉、権力です。しかし、さらに根本的な面で良く生きる人と生きれない人を規定するならば、創造原理の通りに生きる人は良く生きる人で、創造原理の通りに生きられない人は良く生きれない人です。いくら派手で潤沢な環境で生きていても、創造原理の通りに生きていない人は間違っているのです。

地球上に住む私たち人類は、神様の創造原理をおいて見る時ほとんどの人が誤って生きています。神様が見る基準は‘原理の通りに生きているか、神様の御言の通りに生きているか、神様が願う人として存在しているのか。’が重要です。王だ、大統領だ、首相だということは神様の眼中にはありません。外的なものにだけ重点を置いて生き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神様が見る基準にしたがって生活する人が良く生きる人です。

内的な基準ではなく外的な基準にだけぶらさがって生活する人は、あたかも故障した人間、すなわち重病患者と同じです。現実の人間は故障した状態です。墮落により故障した人間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使用法の通りに使わない電子製品が故障するように、今日、墮落した人間は創造原理が分からないので、どのように生きてこそ正しく生きるのかという、その方法を知らないまま生きています。私たちの人間は、分かってみれば髪の毛の先からつま先まで満身瘡痍になった重病の患者であるわけです。

육신의 병만으로는 중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의 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병을 고쳐야 합니다.

이 중환자를 고쳐야 하는데, 그 분야를 확실히 아는 전문의만이 그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할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그 처방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약을 복용하고 먹는 약의 순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귀찮다고 자기 방식대로 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앞의 예처럼 환자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았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인간이 지금 앓고 있는 중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을 버리고 창조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창조원리대로 살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 【翻訳】

身体の病気だけでは重い患者だとはしません。身体の病気よりさらに恐ろしい病気が心の病気です。価値をなくして目的なく生きようになってしまうことほど恐ろしい病気はありません。そのために私たちの人間は身体の病気だけが問題ではなく、心の病気を治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重い患者を治すべきなので、その分野を確かに分かる専門医だけが、その病気を正確に診断して治癒する薬を処方することができます。専門医が病気を診断して処方を下せば患者はその処方を必ず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規則的に時間を合わせて薬を服用して飲み薬の順序もよく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面倒だと自分のやり方で薬を服用すればかえって病気がさらに悪化することになります。

前の例のように患者が自身の病気を治療することは決して容易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今まで自分の考え

のままに生きてきましたが、他のある人が指示して、その通りに生き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より一層大変です。だから人間が今、病んでいる重病を回復するためには、今まで生きてきた習慣を捨てて創造原理の通りに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創造原理の通りに生きれば本来の姿に回復することができます。

### 3) 인생의 목적은 언제 결정되는가? (人生の目的はいつ決定されるのか?)

인간이 사는 목적은 언제 결정되는가. 인간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인간의 사는 목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기 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결정됐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이 생산되어 나오기 전 설계도에 따라 물건은 생산됩니다. 인간도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원리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실천한 경험을 토대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현실 문제를 만든 당사자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결도 인간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무지해서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등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통일원리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교리가 아니고 만인이 알고 실천해야 할 촌도요, 원리입니다.

#### 【翻訳】

人間が生きていく目的はいつ決定されるのでしょうか。人間は生まれてから生きている間に人間の生きる目的が決定されるのではなく、人間が生まれる前に神様が人間を創造される時に、すでに決定されています。工場で物を作る時、物が生産されて出てくる前に設計図により物は生産されます。人間も生まれる前に神様が創造した原理の通り生き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人間は創造原理の法度が分からないので、自分が見聞きした経験に基づいて生きようとするのです。しかし前にも申し上げたように、人間は神様の創造目的の通りに生きるということが最も良く生きることなのです。

人間は現実問題を作った当事者です。ですから問題の解決も人間が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ところで、人間は墮落による無知のため、この現実問題を解決できません。

人間が生きていく目的など現実世界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まず神様を確かに分かるべきなのです。したがって神様をはっきりと教える統一原理は前にも話したようにある種の教理ではなく、万人が知って実践しなければならない天道であり、原理です。

### 1. 하나님의 이성성상 (神様の二性性相)

지금까지 종교인과 신앙인을 포함한 많은 지성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가?'에 대한 논쟁을 해왔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 장 14 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1 장 20 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신성으로 지은 피조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 장 27 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전개된 남자와 여자를 잘 관찰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翻訳】

今まで、宗教家と信仰人を含んだ多くの知性人は神様に対する問題を置いて'神様がいる、いない',そして'万一、神様がおられるならば神様はどのようにおられるのか?'に対する論争をしてきました。

聖書の出エジプト記 3 章 14 節を見れば、'私は自らあるのだ。'と語られています。神様は自存される方という話です。また、ローマ書 1 章 20 節を見れば、'創世から彼の見えざるものなども、まもなく彼の永遠な能力と神聖がそのお造りになった万物に明確に見えて知ようになるので、したがって私どもは言い訳ができないのです。'と語られています。神様が能力と神性がそのお造りになった万物を見れば神様がどのようにおられるのかが分かるという御言です。そして創世記 1 章 27 節に'神様が自分の形状、まさに神様の形状のとおりの人を創造され、男性と女性を創造して.....'と語られました。神様の形状により展開した男性と女性をよく観察すれば、神様が持っておられる属性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御言です。したがってこの三種類の御言を中心として神様に対して調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 1) 존재의 법칙 (存在の法則)

존재하는 사물에는 존재의 법칙이 있습니다. 존재의 법칙 가운데 하나는 인과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닮기법칙입니다.

인과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이 인과법칙을 따릅니다. 원인은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눈에 보입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원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는 보이지 않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원인이고, 보이는 피조물은 결과입니다.

닮기법칙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닮는다는 법칙으로서 이것도 중요한 존재의 법칙입니다. 결과는 원인을 닮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도 닮기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은 인과법칙과 닮기법칙이라는 두 가지 존재의 법칙에 의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피조물은 원인자인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상반된 모습이 아니라 공통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 【翻訳】

存在する事物には存在の法則があります。存在の法則の中の一つは因果法則で、他の一つは相似の法則です。

因果法則は原因があれば結果があるという法則です。結果があれば原因があつて、原因があれば結果があります。存在するものは必ずこの因果法則に従います。原因は見られませんが、結果は目に見えます。結果は目に見えるので存在するということで、原因は見えないために存在し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目に見える結果は見えない原因によって現れたのです。このように見れば見えない神様は原因で、見える被造物は結果です。

相似の法則は結果は必ず原因に似るという法則で、これも重要な存在の法則です。結果は原因に似ます。例えば子供が両親に似るのも相似の法則に従ったのです。

このように被造物は因果法則と相似の法則という二種類の存在の法則によって存在します。ここで被造物は原因者であられる神様に似たという事実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神様が創造したすべての被造物は神様と相反した姿でなく共通した姿を持っています。

성경 로마서 1 장 20 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가에 비유하면,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가 고인이 되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 남겨 놓은 작품이나 행적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피조물의 공통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1 장을 보면, 하나님은 6 일이라는 기간을 놓고 6 단계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셋째 날에는 온갖 식물들, 넷째 날

에는 해와 달과 별을,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등 온갖 짐승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창조한 인간은 제일 차원 높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순으로 점차 차원이 낮아지는데, 광물도 분자, 원자, 소립자 순으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피조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통된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翻訳】

聖書ローマ書 1 章 20 節にも'創世から彼の見えないものなどは、必ず彼の永遠な能力と神性がそのお造りになった万物に明確に見えてわかるようになるので、したがって私たちは言い訳できないのだ。'とありました。被造物が神様に似たので被造物を通じて神様の属性が分かるという意味です。

作家に比喻すれば、創作活動をした作家が故人になって見るができなかったとしても、生きている間残しておいた作品や行跡を通じて彼がどんな人であったかを知ることが出来ます。したがって創造主である神様を分かるには先に被造物の共通点を調べなければなりません。

聖書創世記 1 章を見れば、神様は 6 日という期間を置いて 6 段階で天地を創造されました。最初の日には光と闇を、二番目の日には天と地と海を、三番目の日にはあらゆる植物を、四番目の日には太陽と月と星を、五番目の日には鳥と魚などあらゆる獣を創造して、六番目の日には人間を創造しました。

神様の最後の日に創造した人間は第一次元で高い存在です。そして動物、植物、鉱物の順で次第に次元が低くなり、鉱物も分子、原子、素粒子順で低くなります。このように被造物はそのまま存在するのではなく全部共通した法則を持っています。

#### (1) 양성과 음성

먼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을 놓고 보면, 사람은 반드시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납니다.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에 차이가 있고 지역이나 인종은 다를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공통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성과 음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식기를 보고 구분합니다.

지금까지 양과 음 이라고 했는데 그냥 양과 음이 아니고 양성과 음성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생식기)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는 양성, 여자는 음성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양성과 음성을 통해 번식, 발전하고 대를 이어갑니다.

#### 【翻訳】

##### (1)陽性と陰性

まず神様に最も似ていた人間をおいて見れば、人は必ず男性でなければ女性に生まれます。過去、現在、未来というように時間に差があり、地域や人種は違っても人は必ず男性か女性に生まれるということは共通の法則です。それがまさに陽性と陰性です。男性と女性は生殖器を見て区分します。

今まで陽と陰だとしてきましたが、そのままの陽と陰ではなくて陽性と陰性です。それは男性と女性の性(生殖器)を中心にして男性は陽性、女性は陰性だと規定したのです。人はこの陽性と陰性を通じて繁殖し、発展して代に渡ります。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만물을 인간보다 먼저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을 본으로 한 만물의 창조가 가능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상이 인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겠다는 선유조건을 세워놓고 먼저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이 태어나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중착점은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는 인간을 닮도록 창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 【翻訳】

そのような人間が神様に似て創造されましたが、神様は人間を元にして万物を造りました。実際には万物を人間より先に創造されました。どのようにすれば、存在することもない人間を元にした万物の創造が可能

なののでしょうか？ それは神様の構想が人間にあったためです。人間を創造するという先惟条件を立てておいて、先に万物を創造して、人間が生まれれば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環境をあらかじめ造ったのです。神様の創造の究極的な中心点は人間にありました。それですべての被造世界は人間に似るように創造されたと見るのです。

동물도 인간의 남자와 여자에 해당하는 수컷과 암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이 없으면 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물을 놓고 수컷과 암컷이라 한 것도 생식기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말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수술과 암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물도 역시 수술과 암술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광물계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 분자를 이룹니다. 원자도 양자와 전자로 인해 이루어지고, 소립자도 양성자와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翻訳】

動物も人間の男性と女性に該当する雄と雌で形成されています。雄と雌がなければ繁殖がありえません。動物において雄と雌といったのも生殖器を中心に規定する言葉です。

植物も同じように雄しべと雌しべで形成されています。植物もやはり雄しべと雌しべを通じて繁殖します。

鉱物界も陽イオンと陰イオンがあって分子を形成します。原子も陽子と電子によって形成されており、素粒子も陽性と陰性で形成されています。

人間에서 광물질로 내려갈수록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모두가 양성자와 음성이라는 두 가지의 성질을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양성자와 음성이라는 양면성이 존재를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소립자 속에도 양성자와 음성의 두 속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균도 수컷을 통해 번식합니다. 몸속에 있는 병균이 환경이 맞아서 그냥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수컷의 유전자가 만나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만물세계는 그 등급과 위치는 다를지언정 이처럼 양성자와 음성이라는 공통된 법칙 아래 존재합니다. 이처럼 결과의 세계가 양성자와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인인 하나님, 즉 제1원인이 양성자와 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翻訳】

人間から鉱物質に降りて行くほどに、正確に区分されることはないけれど、皆が陽性と陰性という二種類の性質を持ったという共通点があります。この陽性と陰性という両面性が存在を可能にします。なので素粒子の中にもまた陽性と陰性の二つの属性があります。

さらに病原菌においても雄を通じて繁殖します。体の中にある病原菌が環境に適合して、そのまま繁殖するのではなく、必ず雄の遺伝子が出会って繁殖が成り立ちます。万物世界はその等級と位置は違っても、このように陽性と陰性という共通した法則の下に存在します。このように結果の世界が陽性と陰性になっているのは、原因である神様、すなわち第1原因が陽性と陰性によってなっているためです。

### (2) 성상과 형상

만물세계에는 또 다른 측면이 공통점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볼 수 없고 몸은 볼 수 있습니다.

100 평의 땅에 집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구상을 합니다. 몇 평으로 지을지, 정문을 어디로 낼지, 방은 몇 개 만들지, 안방은 어디에다가 둘지, 부엌은 어디에 만들고 화장실은 어디에 둘 것인가? 등 필요에 따라 구상을 합니다. 구상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상한 것은 머리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상은 내적으로 어떤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도 일종의 꼴입니다.

구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설계도가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상이라는 지우지 않고도 수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고치려면 지워야 합니다. 구상을 그려놓으면 하나의 설계도가 되고, 설계도에 따라 일정 시간과 재료를 투입하면 건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구상이 보이는 건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이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 【翻訳】

### (2)性相と形状

万物世界には、また別の側面で共通点があります。人間には心と体があります。人間の心は見ることができなくて、体は見るができます。

100坪の土地に家を一つ建てると考えてみてください。家を造るためには先に構想をします。何坪で造るのか、正門をどこに出すのか、部屋はいくつ造るのだろうか、居間はどこに置くのか、台所はどこに造って、トイレはどこに置こうか? など必要に応じて構想をします。構想したことは見られません。構想したことは頭の中に入っている一つの像に過ぎません。しかし構想は内的にある形を有しています。見えることはないけれど心も一種の形なのです。

構想を描くことで、それを描いておけば設計図になります。頭の中にある像として消さずとも、数えきれない程変更ができます。しかし設計図を直すには消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構想を描いておけば一つの設計図になり、設計図により一定の時間と材料を絶えず投じれば建物が現れることになります。見えない構想が見える建物として現れたのです。人間もこのように見えない心が体を通じて表現されるのです。

人間에게 마음과 몸이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만물에도 마음과 같은 내성이 있고 몸과 같은 외형이 있습니다. 피조만물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인간의 마음과 같은 동물심이 있고 동물심에 따라 움직이는 몸, 즉 동물체가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심이 있고 그 식물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식물체가 있습니다. 식물을 관찰해 보면 주광성이나 굴광성에 따라 식물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나팔꽃의 경우 꽃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씨 속에 나팔꽃이 줄기로 휘감고, 꽃이 새벽에 피었다가 해가 떠오르면 지는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씨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향기도 들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모두 마음과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 【翻訳】

人間に心と体があるように、すべての被造万物にも心と同じ内性がある、体と同じ外形があります。被造万物は人間を元にして造ったので人間に似たのです。

動物にも人間の心と同じ動物心がある、動物心により動く体、すなわち動物体があります。

植物も植物心がある、その植物心によって動く植物体があります。植物を観察してみれば走光性や屈光性により植物が追求する方向のとおりに動きます。朝顔の場合、花の種は非常に小さいです。しかしその小さい種の中に朝顔がつるでぐるぐる巻いて、花が夜明けに咲いて太陽が浮び上がればすばむ属性が含まれています。その小さい種の中に生命が入っていて香りも入っています。動物や植物も全部、心と体に該当する部分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 다음 광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에도 인간의 마음해당하는 내명성이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하도록 명령하고 감독하는 원인적인 요소가 바로 내명성입니다. 내명성에 따라서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물 분자를 형성합니다. 분자를 쪼개 원자에도 내명성이 있습니다. 내명성이 전자에게 양자를 중심으로 돌도록 합니다. 원자를 쪼개 소립자도 양성자와 음성이 있으며 그것도 내명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명성은 에너지입니다. 인간의 육신이나 마음도 마지막에는 에너지로 존재합니다. 존재세계가

물질도 되어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입자성 에너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입자성 에너지입니다. 파동성 에너지는 입자성 에너지가 물체가 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통일원리'에서는 이 파동성 에너지와 입자성 에너지의 작용을 내명성이라고 규정합니다. 파동성 에너지는 우주의 근본으로서, 그 근원은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 【翻訳】

その次に、鉱物界も同じことです。分子にも人間の心に該当する内命性があります。陽イオンと陰イオンをかけ合わせて分子を形成するように命令して監督する原因的な要素がまさに内命性です。内命性にしたがって水素二つの分子と酸素一つの分子が出会って水分子を形成します。分子を分けた原子にも内命性があります。内命性が電子に対して陽子を中心に回るようにしています。原子を分けた素粒子も陽性と陰性があってそれも内命性によって動きます。

内命性はエネルギーです。人間の体や心も最終的にはエネルギーで存在します。存在世界が物質でなっていると規定しますが、事実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ここで話すエネルギーには二種類あります。一つは精神的な分野における粒子性エネルギーです。他の一つは物理的な分野における粒子性エネルギーです。波動性エネルギーは粒子性エネルギーが物体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命令します。'統一原理'では、この波動性エネルギーと粒子性エネルギーの作用を内命性だと規定します。波動性エネルギーは宇宙の根本として、その根源は神様に由来します。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물세계는 무엇이든지 내성과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성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어떤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았습니다. '통일원리'는 보이지 않는 내성을 성상이라 하고, 보이는 외형을 형상이라 합니다. 이처럼 만물세계는 성상과 형상이라는 공통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상과 형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상과 형상은 앞에서 논한 양성, 음성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공통된 법칙입니다.

#### 【翻訳】

先に見回して説明したように、万物世界は何でも内性と外形を備えています。内性は目に見えることはいけけれど必ずある格好を有しています。そして見える外形は見えない内性に似ました。'統一原理'は見えない内性を性相といい、見える外形を形状といいます。このように万物世界は性相と形状という共通の面を持っています。

ここで性相と形状はコインの両面のように同じ存在の相対的な両面の格好をいうことであるので、形状を'第2の性相'ともいいます。この性相と形状は前に論じた陽性・陰性と区別されるもう一つの共通した法則です。

피조세계가 지닌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라는 법칙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이처럼 피조세계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양면성, 즉 성상과 형상, 또는 양성과 음성을 각각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성성상은 같은 존재의 양면적인 꼴을 말하는 것이므로 성상과 형상도 이성성상이고, 양성과 음성도 이성성상입니다.

이성성상의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성과 음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상과 형상은 서로 주체와 대상, 안과 밖, 원인과 결과, 종과 횡, 무형과 유형의 관계를 지니며, 양성과 음성은 서로 주체와 대상, 안과 밖의 관계를 지닙니다.

#### 【翻訳】

被造世界が持っている性相と形状、陽性と陰性という法則は過去、現在、未来にも変わらない永遠の法則です。このように被造世界が共通して持っている両面性、すなわち性相と形状、または陽性と陰性をそれぞれ'二性性相'といいます。二性性相は同じ存在の両面的な格好をいうことであるので性相と形状も二性性相であり、陽性と陰性も二性性相です。



二性性相の性相と形状、そして陽性と陰性は互いに不可分の関係があります。性状と形状は互いに主体と対象、内と外、原因と結果、縦と横、無形と有形の関係を持っており、陽性と陰性は互いに主体と対象、内と外の関係を持っています。

## 2) 하나님의 실상 (神様の実相)

인간으로부터 소립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이라는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된 법칙입니다.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피조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장 27 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거든 사람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인 피조세계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으니, 원인인 하나님도 성상과 형상, 음성과 양성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翻訳】

人間から素粒子に至るまで、すべての存在は性相と形状、陽性と陰性という二性性相になっています。これが共通した法則です。二性性相になっている被造万物を見れば、神様が二性性相になっているという事実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

創世記 1 章 27 節にも神様が自分の形状、すなわち神様の形状のとおりの人を創造され、男と女を創造して・・・'と記録されています。それは神様の形状を分からないのなら人を見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そのように見れば、結果である被造世界が性相と形状、陽性々と陰性になっているとするなら、原因である神様も性相と形状、陰性と陽性になっているという事実を当然に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す。

피조만물이 지닌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성상, 형상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상, 형상과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은 존재세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근본 본 자를 붙여서 본성상과 본형상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에도 근본 본 자를 붙여서 본양성과 본음성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이라는 꼴을 가진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 【翻訳】

被造万物が持っている性相と形状、陽性と陰性は神様に似たのです。神様も性相と形状、陽性と陰性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なら神様が持っている性相・形状は人間が持っている性相・形状と何が違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神様は存在世界の根本です。それで神様には根本である本の字をつけて呼び、本性相と本形状といいます。同じように神様の陽性と陰性にも根本である本の字をつけて呼び、本陽性と本陰性と表現します。神様は見えることはないけれど本性相と本形状、本陽性と本陰性の二性性相という格好を持つ中和的統一体としておられます。

결과는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데 원인에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제 1 원인이 나옵니다. 제 1 원인이라는 말은 원인 중의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1 원인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것도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니 그 원인을 추적하면 또 원인이 나올 것이다. 계속 원인을 추적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니 신도 없고 무다. 존재세계는 보이는 것밖에 없다.' 이러한 유물사상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원인을 추구해 가더라도 최종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1 원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제 1 원인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과학에서는 절대자, 철학에서는 유일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입니다.

제 1 원인인 하나님이 이성성상을 지녔기 때문에 결과체인 만물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성성상이라는 양면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이 전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법칙에 따라 결과세계를 있게 한 원리본체입니다.

#### 【翻訳】

結果は原因によって現れますが、原因に原因をずっとさかのぼれば第 1 原因が出てきます。第 1 原因であるという話は原因のうちの原因という話です。このように話せば反論する人もいます。'第 1 原因であるということはどこからきたのか？ それも原因があつて結果として現れたことだとか、その原因を追跡すればまた、原因が出てくるだろう。ずっと原因を追跡すれば結局は何もないという結論に至る。だから神様もない無だ。存在世界は見えることしかない。'このような唯物思想を持つ若者たちがいます。

ところがいくら原因を追求して行っても最終的な原因は一つです。それで第 1 原因であるといったのです。この第 1 原因を示してキリスト教では創造主、科学では絶対者、哲学では唯一者といいます。これを韓国語で表現すれば神様です。

第 1 原因である神様が二性性相を持ったので結果体である万物も神様に似て二性性相という両面の属性を持っています。被造世界は神様の本性相と本形状、本陽性と本陰性の二性性相が展開したものです。神様は存在の法則によって結果世界を存在させるようにした原理本体なのです。

#### (1) 본성상과 본형상

존제세계의 제 1 원인자인 하나님을 원리본체로 규정했습니다. 원리본체, 즉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마음과 같은 부분이 있고 몸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입니다.

본성상은 인간의 마음과 같은 부분이고 본형상은 인간의 몸과 같은 부분입니다. 원리본체는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의 마음과 몸처럼 두 속성의 끝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 【翻訳】

##### (1) 本性相と本形状

存在世界の第 1 原因者である神様を原理本体として規定しました。原理本体、すなわち神様には人間の心と同じ部分があり、体と同じ部分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が本性相と本形状の二性性相です。

本性相は人間の心と同じ部分であり、本形状は人間の体と同じ部分です。原理本体は見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が、人間の心と体のように二つの属性の格好を同時に持っているのです。

우리 몸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본형상보다 본성상이 중심입니다. 이 본성상의 근본 속성이 바로 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마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정은 하나님 참사랑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 인격의 핵이 됩니다.

그 심정에서 나온 사랑이 참사랑인데,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체를 지니지 않는 한 이런 내용은 실체화되지 않습니다. 또 느껴지지도 않고 체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체를 지니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 【翻訳】

私たちの体より心が重要なように神様も本形状より本性相が中心です。この本性相の根本属性がまさに心情です。言い換えれば、神様の性相は神様の心であり、心のうちでも最も核心なのが心情というものです。心情は神様の真の愛の根になり、神様の人格の核になります。

その心情から出た愛が真の愛なので、真の愛を実践することが人格になります。神様が実体を持たない限り、このような内容は実体化されません。また感じられることもなく、体現されることもありません。それなので神様が実体を持つために人間を創造したと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원리본체는 심정의 근원자로서 사람을 통해 참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원리본체를 놓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심정에서 나온 사랑이 참사랑이고, 참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품격이 인격입니다. 하나님에게 '님' 자를 붙이는 것도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규정짓지 못했습니다.

#### 【翻訳】

原理本体は心情の根源者として、人を通じて真の愛を実践するので、原理本体を置いて人格的な神様という言葉を使うことになったのです。心情から出た愛が真の愛であり、真の愛を表現して実践した時、現れる品格が人格です。神様に「ニム」という字を付けるのも人格的な表現です。

今までキリスト教では愛の神様、偉大な神様、光栄の神様、全知全能なる神様、審判の神様だと名前を付けましたが'心情の神様'と定め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대의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입니다. 본형상은 본성상의 대상으로서 원리본체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현상세계를 존재케 하는 힘이기 때문에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만유원력에는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포함됩니다. 하나님도 이 만유원력의 원리와 법도와 질서 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 【翻訳】

神様は人格的な神であり、同時に靈的な存在なので無限大の靈としておられます。神様はすべての存在の創造主として時間と空間を超越して永遠に自らおられる絶対者です。

本形状は本性相の対象として原理本体の体ということが出来ます。これは能力に該当する分野として、現象世界を存在させる力なので万有原力といいます。万有原力には原理と法度が細かく含まれます。神様もこの万有原力の原理と法度と秩序の中で運行して役事される方です。神様が創造主だとしても思いのままに生きることはいけません。

만유원력은 모든 존재를 존재하도록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성서에서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 장 20 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성은 본성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본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리본체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피조만물의 성상, 형상과 마찬가지로 주체와 대상—원인과 결과, 상과 하, 전과 후, 안과 밖, 종과 횡, 무형과 유형이라는 상대적 관계입니다.

#### 【翻訳】

万有原力は、すべての存在を存在せしめる力なので、その分野は無限大です。それを聖書では能力と表現しました。ローマ書 1 章 20 節に'創世から彼の見えないものなどは、まさに彼の永遠な能力と神性が、そのお造りになった万物において明らかに知られて知ることになるので、したがって私たちは言い訳分けないのだ。'という内容があります。聖書で話す神様の神性は本性相のことをいい、神様の能力は本形状をいいます。

原理本体の本性相と本形状は被造万物の性相・形状と同じように主体と対象、原因と結果、上と下、前と後、内と外、縦と横、無形と有形という相対的な関係です。

본성상과 본형상의 상대적 관계로 보면 본성상이 주체요, 본형상은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체와 대상은 격위의 개념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시간의 개념이고, 상, 하, 안, 밖, 종, 횡은 위치의 개념입니다. 또 전, 후는 위치와 시간이 복합된 개념이고, 무형과 유형은 시각적인

개념입니다.

성상에 속하는 원인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원인에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시간이 나오고, 형상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형체가 드러나면서 위치, 즉 공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성상은 무형이나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본형상을 통해 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무형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翻訳】

本性相と本形状の相対的關係で見れば、本性相が主体で本形状は対象です。ここで話す主体と対象は格位の概念です。原因と結果は時間の概念であり、上・下、中・外、縦・横は位置の概念です。また前・後は位置と時間が複合した概念であり、無形と有形は視覚的な概念です。

性相に属する原因には時間と空間がありません。原因において結果が成り立つ過程があつてこそ、時間が出てきますし、形状という結果が出てこそ、形体があらわれて位置、すなわち空間が決定されるのです。本性相は無形や有形だと規定化を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が、本形状を通じて形体が現れたので、相対的な概念として無形という言葉が成立するのです。

창조가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에게도 완성하기 위한 성장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각이 감지할 수 있는 어느 한계선을 넘으면 그 점을 볼 수는 없지만 끝없이 가더라도 그 한 점은 존재합니다. 그 핵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한 점과 같은 작은 점에서부터 하나님은 커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점에서부터 커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도 본성상과 본형상을 통해 당신 스스로를 창조하고 성장시켰다는 뜻입니다. 성서 출애굽기 3 장 14 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翻訳】

創造が広がる前に神様にも完成するための成長期間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視覚が感知できる、ある限界線を越えれば、その点を見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終わりなしに行ってもその一点は存在します。その核が神様です。そのような一点と同じ小さい点から神様は育ちました。

神様が一点から育たれたという話は、神様も本性相と本形状を通じて自らを創造して成長させたという意味です。聖書、出エジプト記 3 章 14 節にも'神様がモーゼにあるように、私は自らある者だ。'という一節があります。

(2) 본양성과 본음성

인간으로부터 소립자까지 모든 피조물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양성과 음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양성과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상 상성입니다. 양성과 음성은 하나의 성(생식기)을 의미합니다. 창조는 본성상의 심정과 본형상의 능력을 동기로 하여 벌어지지만 최종적으로는 본양성과 본음성의 절대성(여기에서는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번식을 위한 절대적인 생식기를 말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본양성의 절대성에서 출발한 정자는 참사랑의 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본음성의 절대성에서 출발한 난자는 참생명의 몸입니다. 참사랑의 씨와 참생명의 몸이 하나님 안에 공존하지만, 그 자체는 존재세계의 근원일 뿐 시간과 공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체적으로는 창조나 번식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필요로 합니다.

【翻訳】

(2)本陽性と本陰性

人間から素粒子まで、すべての被造物は共通して神様の属性である陽性と陰性があるといいました。同じように神様にも陽性と陰性があります。それが本陽性と本陰性の二性性相です。陽性と陰性は一つの性(生殖器)を意味します。創造は本性相の心情と本形状の能力を動機にして広がりますが、最終的にこれでは本陽性と本陰性の絶対性(ここでは違うものと比較したり両立できない繁殖のための絶対的な生殖器をいいます)を通じて成り立つのです。

神様の中にある本陽性の絶対性から出発した精子は、真の愛の種です。神様の中にある本陰性の絶対性から出発した卵子は、真の生命の体です。真の愛の種と真の生命の体が神様の中に共存しますが、それ自体は存在世界の根源であるだけで、時間と空間性を有していないので自主的には創造や繁殖が広がりません。それで実体を必要とします。

하나님의 실체로 아담,해와(남자, 여자)가 나타날 때 절대성 참아버지의 참사랑의 씨와 절대성 참어머니의 참생명의 몸이 하나 되어 번식이 이루어집니다. 실체인 아담과 해와의 생식기를 통해서 혈통이 세워지고 핏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밝힌 본성상과 본형상의 관계처럼 원리본체의 본양성과 본음성도 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는 주체와 대상, 안과 밖, 우와 좌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은 서로 수직적이요 종적인 관계를 이루고 본양성과 본음성은 수평적이요 횡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 【翻訳】

神様の実体としてアダム・エバ(男性・女性)が現れる時、絶対性の真の父の真の愛の種と絶対性の真の母の真の生命の体が一つになって繁殖が成り立ちます。実体であるアダムとエバの生殖器を通じて血統が立てられて、血筋が続くことになるのです。

前にも明らかにした本性相と本形状の関係のように、原理本体の本陽性と本陰性も相対的な関係にあります。すべては主体と対象、内と外、右と左の関係で存在します。本性相と本形状は互いに垂直的です。縦的な関係を成し遂げます。本陽性と本陰性は水平的です。横断の関係を成し遂げます。

또 같은 양성과 음성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양성도 자세히 살펴보면 양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음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좁은 데가 있습니다. 음성도 마찬가지로 양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음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좁은 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성에도 양적인 기질과 음성적인 기질이 있으며, 음성에도 양적인 기질과 음적인 기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양성도 음성,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도 음성은 상하의 주종관계가 아니라 좌우의 평등관계입니다.

#### 【翻訳】

また、同じ陽性と陰性も全く同じではありません。陽性も詳しく調べれば、陽的な部分に該当する広いところがあるかと思えば、陰的な部分に該当する狭いところがあります。陰性も同じことです。陰性も陽的な部分に該当する広いところがあるかと思えば、陰的な部分に該当する狭いところがあります。言い換えれば陽性にも陽的な気質と陰的な気質があり、陰性にも陽的な気質と陰的な気質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大きく見れば陽性と陰性の二つに分けられます。そのために、陽性と陰性は上下の主従関係ではなく左右の平等関係です。

### (3) 이성성상의 통일체

앞에서 원리본체가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원리본체를 분립된 다수의 개체로 보면 안 됩니다.

#### 본성상과 본형상의 통일체

본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형상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마음과 몸은 개념으로 볼때는 정신과 물질로 나뉘지만 실재는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翻訳】

### (3)二性性相の統一体

前に原理本体が本性相と本形状、本陽性と本陰性の二性性相で存在する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しました。そうだからといって原理本体を分立した多数の個体として見てはいけません。

## 本性相と本形状の統一体

本性相は神様の心であり、本形状は神様の体です。神様は本性相と本形状の中和的統一体としておられます。心と体は概念で見る時には精神と物質に分かれますが、実在は一つなのと同じことです。

정신은 속하는 마음은 존재하기 위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질에 속하는 몸만이 공간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성상과 본형상은 공존하는 동일요소입니다. 제 1 원인자인 하나님의 본체는 마음과 몸, 두 요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동일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체입니다.

물과 수증기와 얼음은 액체, 기체, 고체라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지만 그 본질은  $H_2O$ 입니다. 물도  $H_2O$ , 수증기도  $H_2O$ , 얼음도  $H_2O$ 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기체, 고체로 존재하는 물의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그 본질은 수소와 산소라는 동일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 상상은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입니다. 마음과 몸을 이원론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들은 통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원론이 맞는 것입니다. 존재세계는 물질과 정신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 【翻訳】

精神に属する心は存在するために空間を必要としません。そして物質に属する体だけが空間を必要とするだけです。それで、本性相と本形状は共存する同一要素です。第1原因者であられる神様の本体は心と体、二つの要素が別々に存在するのではなく、分離できない完全な同一要素で形成されているので、統一体です。

水と水蒸気と氷は液体、気体、固体というそれぞれ違う特性を持ちますがその本質は  $H_2O$  です。水も  $H_2O$ 、水蒸気も  $H_2O$ 、氷も  $H_2O$  でなっています。液体、気体、固体で存在する水の形態はそれぞれ違いますが、その本質は水素と酸素という同一要素になっています。したがって二性相は二元論ではなくて一元論です。心と体を二元論と考えやすいのですが、これらは統一体で存在するので一元論が合うのです。存在世界は物質と精神が別々にあるように見えますが、事実その本質は一つなのです。

그렇다면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등의 논쟁은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본질을 보니 원인적 존재인 하나님도 시차가 없는 정신과 물질의 두 요소로 되어 있으며,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제 1 원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창조주요, 절대자요, 유일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성상의 속성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고 본형상의 속성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입니다. 그런데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심은 심정입니다. 심정이 있기 때문에 참사랑과 인격도 있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이 기능합니다. 심정과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떼어 놓으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원리 안에도 심정이 작용하고, 법도 안에도 심정이 작용하고, 질서 안에도 심정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翻訳】

そうならば'精神が先か、物質が先か?','唯物論か、唯心論か?'などの論争はこれ以上、無意味なのです。本質を見ると、原因的存在である神様も時差がない精神と物質の二つの要素になっていて、互いに対立するのではなく一つの統一体で存在します。ここで明らかなのは第1原因であられる神様だけを'創造主、絶対者、唯一者'と呼ぶことができるという事実です。

本性相の属性は心情と真の愛と人格であり、本形状の属性は原理と法度と秩序です。ところで本性相と本形状の中心は心情です。心情があるからこそ真の愛と人格もあり、原理と法度と秩序的な生活が機能します。心情と原理と法度と秩序を取り除けばとても寂しいです。それで原理の中にも心情が作用しており、法度の中にも心情が作用しており、秩序の中にも心情が作用しているのです。

심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은 거기에 참사랑이 있고 인격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심정과 원리도 이질적인 요소라 해서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안 됩니다.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제 1 원인자이시며 본성상과 본형상, 이성성상의 중화적인 통일체로 계십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은 하나님의 마음과 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몸 속에는 원리와 법도와 질서가 있습니다.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떠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몸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를 다 주셨습니다.

#### 【翻訳】

心情が作用しているという言葉は、そこに真の愛があり、人格が入っているという言葉です。心情と原理も異質な要素だといって、別々に切り離して見てはいけません。原理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は第1原因者であられ、本性相と本形状の二性性相の中和的な統一体とおられます。

本性相と本形状は神様の心と体です。神様の心の中には心情と真の愛と人格があり、神様の体の中には原理と法度と秩序があります。原理と法度と秩序を離れた神様は存在しません。したがって人間も神様の心に似、神様の体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は私たち人間にそうなることができる要素を皆、授けられました。

벼농사를 예로 들면, 벼는 이삭이 나오면 하얀 꽃이 피고 그 꽃이 떨어지면 벌어졌던 벼 껍질이 오므라들면서 그 속에 젖빛 달콤한 물이 가득칩니다. 그 달콤한 물이 씨가 됩니다. 여물기 전 벼 껍질 속에 들어 있는 달콤한 물을 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달콤한 물은 씨가 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씨가 되는 요소가 일정 기간을 지나 완숙하게 되면 비로소 씨로 완성됩니다. 완성과 완숙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주신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상이라고 하는 마음의 꿀 속에 하나님 심정의 본질적 속성을 닮을 수 있도록 모든 요소를 다 주셨습니다. 인간은 생활을 통해서 그 요소를 완숙시켜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온전히 닮아야 하고, 몸으로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완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翻訳】

稲作を例にあげれば、稲は落ち穂が出てくれば白い花が咲いて、その花が落ちれば広がった稲皮をひっこめて、その中に乳白色の甘い水がぎゅっしり埋まります。その甘い水が種になります。熟す前の稲皮の中に入っている甘い水を種だとはしません。その甘い水は種になる要素であるだけです。種になる要素が一定期間をすぎて完熟することになれば、はじめて種として完成されます。完成と円熟は少し違った概念です。

同じように、人間の中にも神様のくださった要素をすべて賜っています。神様は、人間の性相という心の形の中に神様の心情の本質的属性に似られるように、すべての要素を皆くださりました。人間は生活を通じて、その要素を円熟さ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心では神様の心情と真の愛と人格に全て似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体では神様の体になって、原理と法度と秩序的な生活をしてこそ円熟の位置に進むことができます。

지구상에 70 억 인류가 살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통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본성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몸도 본형상인 하나님의 몸을 닮으면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닮은 인간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통하여 인류를 통일체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오색인종이 하나님을 닮아 원리의 본체 안에서 실체화한다면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고, 투쟁하는 요소는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인류는 역사상 오랫동안 염원해 온 통일된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 【翻訳】

地球上に 70 億人類が生きていますが皆が神様に似て神様の中に戻ることになれば、統一は難しくありません。人間の心が本性相であられる神様の心に似て、体も本形状である神様の体に似れば統一されます。神様の本質的属性である心情と真の愛と人格に似た人間は原理と法度と秩序的な生活を通じて人類を統一体として造り出すことができます。

どこに住もうが、五色人種が神様に似て原理の本体の中で実体化するならば、互いに分かれて、葛藤して、闘争する要素は消えます。その時、初めて人類は歴史上、永らく念願してきた統一された世界を成し遂げることになるのです。

## 본양성과 본음성의 통일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중화적 통일체일 뿐만 아니라 본양성과 본음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십니다. 본양성과 본음성이란 하나님의 절대성(絶対性: 생식기관)에 속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아버지의 생식기, 즉 절대성의 정자인 참생명의 씨를 가졌고, 참어머니의 생식기, 즉 절대성의 난자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명의 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자가 난자를 만나 새로운 혈통이 나오게 되는 것은 정자와 난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식기관입니다.

## 【翻訳】

## 本陽性と本陰性の統一体

神様は本性相と本形状の中和的統一体でおられるだけでなく、本陽性と本陰性の中和的統一体としてもおられます。本陽性と本陰性というのは神様の絶対性(絶対性:生殖器官)に属した二種類の要素をいいます。

それは神様が真のお父様の生殖器、すなわち絶対性の精子である真の生命の種を持っており、真のお母様の生殖器、すなわち絶対性の卵子を持っているという話です。神様がそのような生命の子をはらんだということです。しかし精子が卵子に出会って新しい血統が出てくることになるのは、精子と卵子だけがあれば良い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れらに出会えるようにする器官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生殖器官です。

하나님의 절대성을 실제로 나타낸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실체 남성이 아담이고, 실체 여성이 해와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 하나님 속에 있던 양성과 음성은 하나님의 두 생식기입니다. 하나님이 두 생식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안간이 분리되어 나올 때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따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볼록이, 여자는 오목이를 가졌지만 그 두 생식기의 주인은 상대방입니다. 생식기는 자기 몸에 있지만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생식기의 주인을 엇바꿔 놓은 것입니다.

## 【翻訳】

神様の絶対性を実体で現わしたのが男性と女性です。神様の実体の男性がアダムで、実体の女性がエバです。男性と女性が実体で現れる前には、神様の中にあつた陽性と陰性は神様の二つの生殖器です。神様が二つの生殖器を持っ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中から分立して出る時、男性と女性の生殖器が別々に出てきたのです。

それで男性はポルログを、女性はオモギを持ったのですが、その二つの生殖器の主人は相手方です。生殖器は自分の身にありますが自分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神様が二つの生殖器の主人を互いに取り替えておいたのです。

하나님은 두 생식기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생식기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원인적 존재에는 시



간과 공간성이 없는데다 하나님은 무형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생식기를 가지고 계시지만 당신 스스로 느끼고 체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된 실체를 창조했고 인간은 남자의 생식기, 여자의 생식기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격 주체(男性格主体)이기 때문에 여자를 선유하고 남자를 지었습니다. 여자를 선유했다는 말은 그 여자에 맞게끔 남자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해와의 것이 오목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목이에 맞게끔 아담을 볼록이로 지은 것입니다. 아담의 볼록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볼록이를 닮았습니다.

#### 【翻訳】

神様は二つの生殖器を持っておられましたが、その生殖器は使うところがなかったです。原因的存在には時間と空間性がないばかりか、神様は無形の本体であるためです。なので神様は二つの生殖器を持っておられますが、御自身が自ら感じて体恤する方法がなかったです。それで神様は分離した実体を創造して、人間は男性の生殖器、女性の生殖器と別々にです。

神様は男性格主体であるために、女性を先惟して男性を造りました。女性を先惟したという話は、その女性に合うように男性を作ったという話です。神様はエ바의 것이 오목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목이에 맞게끔 아담의 볼록이를造ったのです。아담의 볼록이는天のお父様の볼록이에似ました。

본양성과 본음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격위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男性格主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성격 주체(女性格主体)가 아니고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남미의 여성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아버지?"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머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 장 27 절의 말씀(하나님은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대로 "하나님의 형성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느냐, 어머니라고 부르자."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원리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본을 따진다면 하나님은 아버지만도 아니고 어머니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다 지니고 있는 우리의 부모입니다.

#### 【翻訳】

本陽性と本陰性の中和的統一體とおられる神様は格位で見るときには男性格主体です。それで神様をお父様と呼びます。女性格主体とは違って男性格主体なので神様をお父様と呼ぶのです。

ところで解放神学を主張する南米の女性神学者が「なぜ神様がお父様なのか?」と問題を提起して「神様はお母様だ。」と主張しています。創世記 1 章 27 節の御言(神様はあなたの形のとおりの人を造り男と女に造られた)のままに「神様の形状のとおり男と女に造ったのに、なぜ神様をお父様とだけ呼ぶのか、お母様だと呼ぼう。」という主張です。それは原理を分からなければ理解することはできない内容です。根本を問い詰めるならば神様はお父様だけでなくお母様だけでもありません。神様はお父様の性分とお母様の性分をみな持っている私たちの父母様です。

하나님은 본양성과 본음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는 절대성의 본체로서 모든 양성과 음성의 주체이기 때문에 격위로 보면 남성격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에는 절대성의 남성격 주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동시에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체라는 말은 대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주체라면 몸은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이 주체라면 여성은 대상입니다. 앞으로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여기에서 세워집니다. 따라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말은 대단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세계는 모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의 질서와 법칙 속에 운행됩니다.

## 【翻訳】

神様は、本陽性と本陰性の中和的統一体とおられる絶対性の本体として、すべての陽性と陰性の主体ですが、格上に見れば男性格主体になります。それで神様を'お父様'というのです。神様という単語には絶対性の男性格主体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ると同時に、私のお父様、私の父母様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

主体という言葉は対象を念頭において言う言葉です。心が主体ならば体は対象です。同じように男性が主体ならば女性も対象です。今後、男性と女性の秩序はここで立てられます。したがって主体と対象という言葉はとても重要です。神様の形状に従った被造世界は全部神様に似たので、主体と対象の秩序と法則の中で運行されます。

남자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를 전제하고 남자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사랑 때문에 평등한 것입니다.

양성과 음성은 상하관계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주체와 대상의 횡적인 관계입니다. 아담에게 '나의 생식기는 네가 주인이 아니라 아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공인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가정이상은 영원합니다. 깨질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되는 절대성 때문에 본연의 세계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두 번 다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 【翻訳】

男性を先に造ったので女性は男性の従属物であると考え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絶対にそうではありません。女性を前提にして男性を造ったためです。男性と女性は平等です。愛のために平等なのです。

陽性と陰性は上下関係や原因と結果ではなく、主体と対象の横的な関係です。アダムに'私の生殖器はお前が主人ではなくアダムだ。'このような内容を父母である神様に公認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祝福です。家庭理想は永遠です。壊れ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二人が一つになる絶対性のために、本来の世界では一度結婚すればもう二度と結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사랑의 생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고 나면 부모인 하나님이 그안에 들어옵니다. '너희들 생식기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너희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주인은 횡적으로 볼 때는 상대가 되고, 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됩니다.

모든 피조만물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결과세계가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는 이 두 생식기의 실체로 나타났다는 말은, 제 1 원인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양성과 본음성의 본체이신 하나님도 내적으로 두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이 본양성과 본음성의 실체로 계신다고는 밝혔지만, 하나님이 두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하지 못했습니다.

## 【翻訳】

愛の生殖器を神様から許諾して受けたなら、父母である神様がその中に入ってきます。'お前たちの生殖器の主人は私だ。'だからお前たちの好きなように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言葉です。それで生殖器の主人は横的に見る時は相手になり、縦的に見る時は神様になります。

すべての被造万物には、より根本的な性分があります。結果世界が陽性と陰性でなっているこの二つの生殖器の実体として現れたという話は、第1原因的な存在が持っている本陽性と本陰性の本体である神様も内的に二つの生殖器を有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今まで'原理講論'では神様が本陽性と本陰性の実体とおられるとは明らかにしましたが、神様が二つの生殖器を有しているという表現はできませんでした。

본성상・본형상과 본양성・본음성의 통일체

하나님의 실상을 설명하려면 본성상과 본형상이라는 이성성상에 본양성과 본음성이라는 또 하

나의 이성성상이 거론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성성상이 아니라 사성성상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에는 본성상과 본형상, 본양성과 본음성이라는 네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성성상이 아니고 이성성상입니다.

【翻訳】

本性相・本形状と本陽性・本陰性の統一

神様の実状を説明するには本性相と本形状という二性性相に本陽性と本陰性というもう一つの二性性相が議論されます。これを見て二性性相でなく四性性相だと間違えて理解する人もいます。

神様の二性性相には本性相と本形状、本陽性と本陰性という四つ性分があります。しかしこれは四性性相ではなくて二性性相です。

왜냐하면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과 본형상이라는 본성에 포함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성상인 마음에는 명량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양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기분 나쁜 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두 요소가 마음속에 있다가 나타납니다.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상 속에도 양적인 요소와 음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상 속에는 양성만 들어가고 형상 속에는 음성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 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이라는 본성, 그리고 본양성과 본음성이라는 속성이 공존하는 이성성상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翻訳】

なぜなら本陽性と本陰性は本性相と本形状という本性に含まれる属性であるためです。性相である心には明るくて愉快で楽しくてうれしい陽的な要素がある反面、憂鬱でいららして気分が悪い陰的な要素もあります。二つの要素が心の中にあり、それが現れます。

形状も同じことです。形状の中にも陽的な要素と陰的な要素が入っています。それを性相の中には陽性だけが入っていて、形状の中には陰性だけ入っていると理解してはいけません。それで第 1 原因であられる神様は本性相と本形状という本性、そして本陽性と本陰性という属性が共存する二性性相とし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원리강론'에 본양성과 본음성의 관계는 본성상과 본형상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본양성과 본음성의 관계도 본성상과 본형상의 관계와 같다고 규정하기 쉬운데,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과 본형상에 속한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양성과 음성의 관계가 무조건 성상과 형상의 관계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 그리고 그 속성인 본양성과 본음성이 포함된 이성성상의 통일체입니다. 통일체에는 싸움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 분의 원인자에서 태어난 실체들은 모두 상대적인 존재이면서도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입니다. 모든 존재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한 통일체로 존재합니다.

【翻訳】

'原理講論'に本陽性と本陰性の関係は本性相と本形状の関係と同じだと説明しておきました。その内容を間違えて理解すれば本陽性と本陰性の関係も本性相と本形状の関係と同じだと規定しやすいのですが、本陽性と本陰性は本性相と本形状に属した属性です。

したがって陽性と陰性の関係が無条件に性相と形状の関係と同じだと見てはいけません。神様は本性相と本形状、そしてその属性である本陽性と本陰性が含まれた二性性相の統一体です。統一体には戦いの概念がありません。一人の方の原因者から生まれた実体は全部、相対的な存在でありながらも内容で見る時は一つです。すべての存在は精神と物質という二つの要素で形成されていますが、戦って葛藤して対立するのではなく喜びのための統一体として存在します。

### 3) 신상과 신성의 구조(철학의 관점) (神相と神性の構造(哲学の観点))

하나님에게는 신상과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꼴, 다시 말해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꼴을 신상이라고 합니다. 신성은 그 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능·성질·능력 등을 말합니다. 신상은 외적인 것이고 신성은 내적인 것입니다.

신상과 신성이 관계성을 가지고 정분합작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위기대입니다. 정분합작용을 하기 위해서 수수작용을 해야 합니다. 수수작용을 하지 않으면 정분합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정분합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위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翻訳】

神様には神相と神性があります。神様は見えることはないけれど格好、言い換えれば形を有しています。神様が持っている格好を神相といいます。神相はその格好の中にある神様の機能・性質・能力などをいいます。神相は外的なことで神性は内的なことです。

神相と神性が関係性を持って正分合作用ができる構造が四位基台です。正分合作用をするためには授受作用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授受作用をしなければ正分合作用が起きなくて、正分合作用が起きなければ四位基台が成り立ちません。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거기에서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과 번식과 작용 등을 위한 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수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리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원리의 힘이 바로 만유원력입니다. 만유원력은 종적인 힘이고, 수수작용은 횡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수작용과 만유원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합니다.

#### 【翻訳】

主体と対象が万有限力によって相対基準を造成して、よく授けてよく受ければ、そこで存在のためのすべての力、すなわち生存と繁殖と作用などのための力が発生します。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発生する作用を授受作用といいます。

授受作用が起きるためには原理の力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原理の力がまさに万有原力です。万有原力は縦的な力であり、授受作用は横的な力ということが出来ます。授受作用と万有原力に対する詳しい内容は後ほど説明します。

### (1) 신상

신상이란 하나님에 대한 꼴의 측면을 말합니다. 신상에는 보편상과 개별상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翻訳】

#### (1)神相

神相というのは神様に対する格好の側面をいいます。神相には普遍相と個別相という二種類の要素があります。

#### 보편상

보편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닮아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인간에서부터 소립자에 이르기까지 피조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 지어졌습니다. 신상의 보편상은 성상·형상, 양성·음성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서 보편상이라고 합니다.

#### 【翻訳】

#### 普遍相

普遍相はすべての被造物が神様に似て共通して持っている性質を言います。人間から素粒子に至るまで被造万物は全部、神様の神相に似せられました。神相の普遍相は性相・形状、陽性・陰性です。すべての被造物は性相と形状、陽性と陰性の属性を持っています。これは被造物が共通して持っている属

性なので普遍相といいます。

### 개별상

한편 모든 피조물에는 독특한 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개별상을 닮아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개별상은 저마다 다른 특성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개성진리체라고 합니다. 피조만물은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편상과 개별상을 닮았습니다. 만물이 종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개별상입니다. 동물은 종 그 자체로 개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나 말은 종별로 하나님의 개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각각의 개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개별상을 가진 독특한 개별체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라도 생김새가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하다못해 쌍둥이도 뱃속에서부터 함께 자라서 태어났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이처럼 다른 개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개별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편상이라고 하는 꼴을 닮았으면서도 개성은 전부 다릅니다. 인간은 개체가 개성진리체이지만, 다른 만물은 종별로 개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별상을 실제로 닮아서 완성해야 하는 인간에게 책임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동물 세계에는 책임분담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翻訳】

#### 個別相

反面すべての被造物には独特な個性があります。それは神様の個別相に似て出てきたためです。個別相は各々異なった特性を置いてする話です。それは個性真理体といいます。被造万物は神様の神相に似て出てきたので神様の普遍相と個別相に似ました。

万物が種別によって形成されていることが個別相です。動物は種それ自体で個別相を有しています。犬や馬は種別で神様の個別相を有しています。しかし人間は違います。人間はそれぞれの個体が神様の無限の個別相を持つ独特の個別体です。同じ父母から生まれた子供でも顔付きが違っており、個性も違っており、好みもみな違います。さらに双子でも腹の中から共に育って生まれはしましたが、自分だけの独特の個性を有しています。

すべての存在が、このように異なった個性を持っていることは神様の個別相に似たためです。すべての存在は神様の普遍相という格好に似ながらも個性は全部違います。人間は個体が個性真理体ですが、他の万物は種別で個別相を有しています。そのために神様の個別相に実体で似ており、完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間には、責任分担があるのです。人間を除いた万物世界には責任分担という言葉が必要ではありません。

### (2)신성

신성이란 하나님의 대한 기능, 성질, 능력의 측면을 말합니다. 인간은 보편상이든 개별상이든 하나님의 신상을 닮고 있으면서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닮았습니다. 심정, 로고스, 창조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신성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 【翻訳】

#### (2)神性

神性というのは神様に対する機能、性質、能力の側面をいいます。人間は普遍上でも個別上でも神様の神相に似ていながらも内的には神様の神性に似ました。心情、ロゴス、創造性の三種類が神様の神性の基本的な要素です。その中でも心情は神様の本質的属性です。

### 심정

하나님 신성의 첫 번째 요소인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본성상의 핵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된 속성이 심정입니다. 심정이 끊어지면 참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죽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 세까지 살았지만, 선

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인간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에서 참생명이 나오고 참생명이 연결된 생식기를 통해서 참혈통이 이어집니다. 심정이 끊어졌기 때문에 참사랑이 없어졌고, 참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생명과 참혈통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정을 잃어버린 것이 거짓사랑입니다. 거짓사랑은 심정을 뿌리로 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 【翻訳】

##### 心情

神様の神性の最初の要素である心情は、神様の本質的属性である本性相の核です。無限の神様の属性の中で最も根本となる属性が心情です。心情が切れれば真の愛はありません。それで墮落したアダムとエバを死んだ人間ということです。アダムは 930 才まで生きましたが、善惡の果を取って食べた瞬間にすでに死んだ人となったのです。死んだ人間になったという意味は神様と本質的な関係が切れたという意味です。

心情は真の愛の根元です。したがって真の愛によって真の生命が出てきますし、真の生命が連結された生殖器を通じて真の血統が続きます。心情が切れてしまったために真の愛がなくなり、真の愛がなくなったので真の生命と真の血統も出てく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心情を失ったのが偽り愛です。偽り愛とは心情を根元にしていない愛です。

##### 로고스

하나님 신선의 두 번째 요소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이범이라는 뜻입니다. 로고스는 희랍어로 이성과 법칙을 뜻하는데, 이성은 자율성을 말하고 법칙은 필연성을 말합니다. 법칙은 인간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연계에는 법칙이 있는데 어떤 존재든 그 법칙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가치법칙도 있습니다. 가치법칙은 우리 인간이 보다 가치 있는 것, 보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법칙입니다. 인간은 본성에 따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가치추구욕이라 하고, 가치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을 가치실현욕이라 합니다.

#### 【翻訳】

##### ロゴス

神様の神性の二番目の要素はロゴスです。ロゴスは理法という意味です。ロゴスはギリシャ語で理性と法則を意味しますが、理性は自律性を言い、法則は必然性をいいます。法則は人間が変更できません。すべての自然界には法則があるので、どんな存在でもその法則に順応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れだけではなく、人間には価値法則もあります。価値法則は私たち人間がより価値あること、より善なるものを追求する法則です。人間は、本性により欲望を追求することを価値追求欲といい、価値を成し遂げようと努力することを価値実現欲といいます。

이법 가운데는 이성인 자율성이 들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꽃이 피고,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나뭇가지에 새순이 나오는데 그것은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함과 동시에 이성으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이성은 다른 만물이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성은 개념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으로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준수하면서, 이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는 존재입니다.

#### 【翻訳】

理法の中には理性である自律性が入っています。春がくれば山に花が咲き、土の中で新芽が芽生えて、木の枝に新芽が出てくるのは必然的な自然の法則です。

そのような自然の法則があるので、私たち人間は身体をもって自然の法則に順応するというと同時に

理性で事物を判断します。理性とは他の万物が持っていないものです。理性は、概念的に考える能力として人間を他の動物と区別する人間の本質的特性です。

自律性は自分自らの原則により、どのようなことをしても自分で自分自身を統制して節制する性質をいいます。人間は自然法則に外れるのではなく、その法則を遵守して、理性を持って自律的に生活する存在です。

### 창조성

신성의 세번째 요소는 창조성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자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가를 만들고자 하는 창조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재품을 발명하는 것만 창조성이 아닙니다.

창조성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볼펜심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뜨개질을 해서 예쁜 옷을 만드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독특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翻訳】

#### 創造性

神性の3番目の要素は創造性です。人間は理性と自律を有していながらも何かを作ろうと思う創造性を持っています。科学者が科学技術を通じて新しい製品を発明することだけが創造性ではありません。

創造性は人間の誰でもが持っています。ある人は宇宙往復船を造る技術を有しているかと思えば、ある人はボールペンの芯を造ることができる技術を有しています。また、ある人は手で編物をして美しい服を作る創造性があります。人は誰でも自分自ら、神様から与えられた独特の創造性を有しています。

북한의 주체사상은 인간이 주체이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에서도 인간의 세 가지 본질을 거론합니다. 인간이 갖추고 있는 3大本質은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주체사상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체사상이 있다면 대상사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대상사상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북한을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해야 올바른 형제로서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모신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입니다.

### 【翻訳】

北朝鮮の主体思想は人間が主体であり、人間が全てのものを決めると主張します。人間が全てのものの主体なので、全てのものを決めるといことです。主体思想では人間の三種類の本質を取り上げて論じます。人間が備えている3大本質は自主性、意識性、創造性だといえます。

そのような主体思想だけがあってはいけません。主体思想があるならば対象思想もなくはないのです。ところが北朝鮮では対象思想を規定できなくなっています。このような話をするのは北朝鮮を批判しようというわけではありません。正しいものは正しいと言い、正しくないものは正しくないと言ってこそ正しい兄弟として同じ道を行くことができます。それは父母に侍る子供として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道理です。

의식성이나 창조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도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나름의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치는 봄이 되면 집을 짓는데 그 까치집을 보면 그 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많이 불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그 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많이 불지 잘 모르는데, 까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까치는 바람이 많이 부는 방향에 절대로 입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방향과 정반대 쪽에 입구를 만듭니다. 까치가 집을 지을 때 입구를 어느 쪽으로 내는 가를 잘 관찰하면 '금년에는 동남풍이 많이 불겠구나!' 혹은 '북서풍이 많이 불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翻訳】

意識性や創造性は人間だけが持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すべての生物が持っています。鳥も子を産んで育て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それなりの創造性を有しています。カササギは春になれば巣を作るのですが、そのカササギの巣を見れば、その年の風がどの方向から多く吹くのか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が出来ます。

人間は万物の霊長といいながらも、その年の風がどちら側で多く吹くのかがよく分かりませんが、カササギはすでに知っています。カササギは風が多く吹く方向に絶対に入口を作りません。風が多く吹く方向と正反対側に入口を作ります。カササギが家を建てる時、入口をどちらに出すのかをよく観察すれば、'今年には東南風が多く吹くだろう。'あるいは'北西風が多く吹くだろう。'と予想できます。

배에 살고 있는 쥐는 그 배가 항해하다가 파선할 것 같으면 출항하기 전에 전부 밧줄을 타고 육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항해하다가 죽습니다.

남미에 가면 개미가 많습니다.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지상 1미터쯤 되는 개미집도 있습니다. 남미의 개미집은 망치로 깨도 잘 안 부서집니다. 그 지역의 토질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이 지상 1미터 높이의 집을 지었으면 땅 속으로는 얼마만큼 깊이 파들어갔겠습니까? 개미가 그렇게 집을 높이 짓는 이유는 그 지역에는 홍수가 잦기 때문입니다. 1미터 되는 개미집이 물속에 잠겼다면 개미들은 벌써 나무 위로 다 올라가버리고 난 뒤입니다.

## 【翻訳】

船に住んでいるネズミは、船が航海して破船しそうだったら、出港する前に全部綱を渡って陸地に出てくるといいます。ところが、人はそれを知らずに航海をして死にます。

南米に行けば蟻が多いです。蟻が巣を作りますが、地上 1メートルぐらいになる蟻の巣もあります。南米の蟻の巣は槌で割ろうとしてもまったくつぶれません。その地域の土質が丈夫なためです。蟻が地上 1メートルの高さの家を建てたら、土の中ではどれほど深く掘り進むでしょうか？ 蟻がそんなにも家を高く作る理由とは、その地域に洪水が多いためです。1メートルになる蟻の巣が水の中に浸ったとするならば、蟻はすでに木の上にみな上がってしまった後です。

사람은 자연재해가 닥치는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는데, 개미는 벌써 알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비가 오면 개미들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개미들이 개미집으로 올라가면 '비가 이 정도 오겠구나.'하고, 만일 개미들이 대이동을 해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면 '이번엔 대홍수가 나겠구나.'하고 대피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미가 인간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성은 하나님의 심정이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억제할 수 없는 정 의 충동심인 심정이 동기가 되어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도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심정의 완성자, 참사랑과 인격의 완성자가 될 때 비로소 창조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대상이 없고, 위하고 싶은데 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으로 창조가 벌어졌습니다.

## 【翻訳】

人は自然災害が近づくのを分からないまま生きていますが、蟻はすでに知っていて移動します。それでその地域の人々は、雨が降れば蟻の動きを観察します。蟻が蟻の巣に上がれば'雨がこの程度降るだろう。'と、万一、蟻が大移動をして木のでっぺんに上がれば'今度は大洪水がくるだろう。'と待避します。そのような面で蟻が人間よりも優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出来ます。

創造性は神様の心情が動機になります。愛したくて耐えることができなくて抑制できない情の衝動心である心情が動機となり、創造が成り立ちました。そうする前には神様も成長していくのです。成長して心情の完成者、真の愛と人格の完成者になる時に、はじめて創造の動機が付与されます。神様が人間を創造したことは、愛したいけれど愛する対象がなく、大切にしたいけれど大切にすることができる対象がいなかったためです。愛して喜ぶたい心の衝動で創造が広がりました。

하나님은 창조성을 가지고 직접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심정의 완성기간이 있었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정의 본체로 계시다.'는 말만으로는 '하나님이 커간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 영역이 4대심정권입니다. 하나님이 4대심정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당신 속에 스스로 완전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실제로 느끼고 체휼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翻訳】

神様は創造性を持って直接ご自身を創造されました。神様にも心情の完成期間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神様が心情の本体としておられる。'という話だけでは'神様が大きくなる、神様がご自身を創造される。'という話を理解するのが難しいのです。神様の心情がどんなものなのかを分か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神様にも子女の心情、兄弟の心情、夫婦の心情、父母の心情があります。そのような神様の心情領域が四大心情圏です。神様が四大心情圏を完成するためには対象が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もご自身の中に自ら完全な創造性を有していますが、それを完全に実体で感じて体恤して完成するためには対象が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자녀가 없는 사람이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형제가 없으면 형제의 심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데 자녀의 심정을 어떻게 느끼고,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없는데 부부의 심정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부부의 심정을 느끼려면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가 있어야 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심정권에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 【翻訳】

子女がいない人が父母の心情をどのように感じるができますか? 兄弟がいなければ兄弟の心情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せん。父母がいらないのに子女の心情をどのように感じて、結婚しないで配偶者がいないのに夫婦の心情をどのように感じますか?

夫婦の心情を感じるには実体で愛することができる夫婦が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父母も、やはり子女がいてこそ父母の心情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す。そうであるために四大心情圏には神様の本質的属性である心情がすべて入っています。

심정은 바로 참사랑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야만 인간도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창조할 때에도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심정이 동기가 되지 않는 창조물을 놓고 하나님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윤을 얻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지만 반드시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翻訳】

心情はまさに真の愛の根元なので、私たちも神様の心情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心情に似たのがまさに創造性です。神様の心情に似てこそ人間も創造性を発揮することができます。私たちがどんなものを創造する時にも、心情が動機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心情が動機にならない創造物を置いては、神様が喜ぶことができません。事業をしても心情が動機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ちろん利潤を得ることが事業の目的ですが、必ず心情が動機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が人間を創造した動機が心情なので、そうなのです。

심정은 하나님의 성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로고스는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고스는 이법입니다. 원리와 질서와 법도가 로고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심정에 대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절대성(절대적인 성)을 통해 혈통으

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심정은 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원리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본체이신 한 분 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창조성은 심정이 바탕이 되어 있으며, 심정은 절대성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려면 '위하는 생활'이 필수입니다.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심정문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혈통 자체는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은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랑은 위하여 살게 되어 있고 심정은 혈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翻訳】

心情は神様の性相に該当する部分で、ロゴスは神様の形状に該当する部分です。ロゴスは理法です。原理と秩序と法度がロゴスの中に入っています。創造性は神様が人間に授けられた心情に対するすべての内容です。それが絶対性(絶対的な性)を通じて血統に連結されます。なので絶対性と心情は一体性を有しています。神様の中にある原理にはみな関連性があります。本体である1人の方の中から出てきたためです。創造性は心情が土台になっており、心情は絶対性と関係を結んでいます。

本来の血統と連結されるためには'為にする生活'が必須です。為に生きるということが、すなわち心情文化に連結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ためです。血統自体は為に生き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す。血統は心情を土台とした真の愛に連結されているのでそうなのです。真の愛は為に生きるようになっており、心情は血統と連結されています。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지었지만, 아담, 해와도 책임분담으로 스스로 성장,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속성을 자기의 책임분담으로 완속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몸을 닮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닮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본체 속에 있는 속성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관계성은 정분합작용이라는 하나의 구조로 나타납니다. 정분합작용은 온전히 상태인 정에서 분리된 상태인 분이 되었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 즉 합성체인 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분합작용은 수수작용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하나인 정에서 출발한 주체와 대상, 분이 수수작용을 통해 새로운 합성체, 합이 되면 삼대상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존재위치를 놓고 보면 그것이 사위기대입니다. 그래서 정분합작용이 없으면 삼대상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삼대상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위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수수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번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翻訳】

神様がアダムとエバを作られましたが、アダム、エバも責任分担によって自ら成長し、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がくれたすべての属性を自らの責任分担で完熟していく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人間が完熟するためには神様の心に似て、体に似て、神様の絶対性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ような内容が神様の神性の中に入っています。

本体の中にある属性は別々に存在するのではなく関係性を有しています。相互関係性は正分合作用という一つの構造で現れます。正分合作用は全ての状態である正から、分離した状態である分になって再び本来の姿、すなわち合成体である合になるということで、正分合作用は授受作用を通じて広がります。

一つの正から出発した主体と対象、分が授受作用を通じて新しい合成体、合になれば三対象目的が成り立つので存在位置をおいてみればそれが四位基台です。それで正分合作用がなければ三対象目的が成り立たないので三対象目的が成り立たなければ四位基台も成り立ちません。結局、授受作用が起きなければ繁殖がないという意味です。

(3)성상의 내부

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성상에는 내적 성상과 내적형상이 있습니다. 내적 성상은 기능적 요소이고, 내적형상은 어떤 꼴에 해당하는 요소, 즉 형의 요소입니다.

【翻訳】

### (3)性相の内部

性相は神様の心に該当する部分です。性相には内的性相と内的形状があります。内的性相は機能的要素で、内的形状はどんな形にも該当する要素、すなわち形の要素です。

#### 내적 성상

내적 성상인 기능적 요소가 바로 지정의입니다. 지정의는 마음의 3 대작용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의 본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와 정과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융합되어 있습니다. 융합된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이기에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 속에는 정과 의가 있고, 정 속에는 자와 의가 있고, 의 속에는 자와 정이 있는 것입니다.

#### 【翻訳】

##### 内的性相

内的性相である機能的要素がまさに知情意です。知情意は心の3大作用要素です。神様は知情意の本体としておられます。神様には知と情と意が別々にあるのではなくそれが皆融合しています。融合した知情意を備えた神様なので神様を人格的な神と表現するのです。知の中には情と意があり、情の中には知と意があり、意の中には知と情があるのです。

지는 지적인 기능입니다. '지'는 아는 것을 통해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에도 이성, 오성, 감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기능이 고장 나면 인식능력이 마비됩니다.

철학은 인간 속에 이성과 오성과 감성이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런 요소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원리'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기능이 지, 정, 의인데, 이는 하나님의 내적 성상을 닮아서 나온 것입니다.

#### 【翻訳】

知は知的な機能です。'知'は知ることを通じて認識する能力をいいます。知にも理性、悟性、感性の三種類があります。知的な機能が故障すれば認識能力が麻痺します。

哲学は人間の中に理性と悟性と感性があると明らかにしていますが、そのような要素がどこからきたのかを説明できずにいます。'統一原理'ではそういう心が神様からきたと明らかにしています。人間の心で作用する機能が知、情、意なのですが、これは神様の内的性相に似て出てきたのです。

이성은 보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으로, 냉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성은 원인과 이유를 논리적으로 묻고 따지며 '옳다' 또는 '그르다'고 판단합니다. 감성은 오감을 통해서 아는 능력인데, 직감적 인식능력입니다. 감성을 가진 사람은 정적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감이 예민하게 발달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모두 감성에 해당합니다.

지적인 기능인 이성, 오성, 감성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분해서 따로따로 설명하지만 그것들은 사실상 연합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 속에는 이성과 감성 둘 다 있지만, 그 중심이 이성이며, 오성 속에도 오성과 감성 둘 다 있지만 오성이 더 강합니다.

#### 【翻訳】

理性は普遍的に真理を探究する能力で、冷徹な人にならせます。悟性は原因と理由を論理的に尋ねて問い詰めて'正しい'または'間違っている'と判断します。感性は五感を通じて分かる能力で、直感的認識能力です。感性を持つ人は情的に傾く傾向があります。直感が鋭敏に発達した人もいて鈍感な人もいます。そのような感情が皆感性に該当します。

知的な機能である理性、悟性、感性を理解しやすいように区分して別々に説明しますが、それらは事実上、連合体になっています。理性の中には理性と感性が二つともありますが、その中心が理性であり、悟性

の中にも悟性と感性の二つともがありますが悟性がさらに強いです。

정은 정적인 기능, 정감성을 말합니다. 정감성은 정적인 기능으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도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노여울 때는 한없이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도 기쁠 때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춤을 춘다면 천주가 즐거워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정감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과 더불어 화동하고 화목하고자 하고, 하나 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노래할 때 자기도 모르게 노래가 나오고, 흥이 겨우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희로애락의 감정인데 그런 감정은 하나님을 닮아서 갖게 된 것입니다.

#### 【翻訳】

情は情的な機能、情感性をいいます。情感性は情的な機能で喜怒哀樂の感情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能力です。したがって創造主、神様もうれしい時は喜んで、悲しい時は悲しんで、恨めしい時は限りなく憤ります。神様もうれしい時は誰よりも喜びます。神様が踊るならば天宙が楽しくて踊るということです。神様が喜怒哀樂の感性を持っておられるのは情感性のためです。

私たちの人間も神様のように喜怒哀樂の感情を有しています。それで周囲の人と一緒に和動したり和睦したりして、一つになろうとする心があります。他の人が歌う時われ知らず歌が出てきて、興が抑えがたければわれ知らず手をあげてひょいひょいと踊ることになるのです。それがみな喜怒哀樂の感情なのですが、そのような感情は神様に似て持つようになったのです。

의는 의적인 기능, 의욕성입니다. 의욕성이 강하면 욕구, 결심, 결단능력이 강해집니다. 지, 정, 의의 기능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적인 사람도 그것만 가지고는 정과 의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지적인 사람끼리 만나면 늘 싸움만 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싸움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적인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으로 지를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정적인 사람은 정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갈 수 있는 의지적인 면, 지적인 면을 겸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와 정을 겸하면 좋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지적인 상대를 만나야 합니다. 한쪽이 불인데 상대방도 불이면 큰일이 납니다. 이쪽이 물인데 저쪽도 물이면 흐리멍덩해집니다.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상대적 개념 속에 존재합니다.

#### 【翻訳】

意は意的な機能、意欲性です。意欲性が強ければ欲求、決心、決断能力が強くなります。知、情、意の機能を調和がとれるようにすることができる心を持つ人が人格者です。どちらか一方で偏ってはいけません。知的な人もそれだけ持っては情と意を消化できません。知的な人同士が会えばいつも戦いだけします。互いに優秀だと戦いだけします。そのような人は相対的に情的な人と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情で知を包容するべきなのです。

また、情的な人は情だけを持っていたはいけません。情的な人は必ずどんな目的と方向を設定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意志的な面、知的な面を兼ね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身が知と情を兼ねれば良いのですが、そうでなかった時は知的な相手に会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一方が火なのに相手方も火なら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こちらが水なのにあちらも水なら曖昧になります。高いところがあれば低いところがあります。必ず相対的です。全てのものはこのように相対的概念の中に存在します。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의적인 사람입니다. 의적인 사람이 바로 행동파인데, 그런 사람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지적이거나 정적인 사람은 혁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절대로 혁명을 못 일으킵니다. 혁명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먼저 계획을 세우더라도 행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무지한 사람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 마음속에서

결심하면 가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의욕성은 욕구와 결심과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음과 같은 요소입니다. 의욕성이 매우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의욕성이 강한 사람이 선두에서 끌고 가야 합니다. 조직 세계도 그런 마음의 작용을 알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翻訳】

一番難しい人が意的な人です。意的である人はまさに行動派なのですが、そのような人が革命を起こします。知的や情的な人は革命をできません。それで学者は絶対に革命を起こせません。革命は分からない人がするのは。知っている人は先に計画を立てても行動は必ず他の人をさせます。無知な人は命令が下ると、恐ろしく心の中で決心すれば行って問題を起こしてしまいます。

意欲性は欲求と決心と決断を実行できる心と同じ要素です。意欲性が非常に弱い人もいます。そのような人は意欲性が強い人が先頭で引っ張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組織世界もそのような心の作用を分かってこそ動くことができます。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이든 심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심정을 떠난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정이 뿌리가 되지 않은 정은 자기를 중심한 정이 되어버립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 신성의 근본입니다.

【翻訳】

最も重要なのはどのような場合でも心情が中心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です。心情を離れた人は誤った行動をしやすいです。自分の欲求のために人を嫌ったり男を殺すこともできます。情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心情が根にならない情は自分を中心とする情になってなってしまう。行動も同じことです。そのために心情が神性の根本なのです。

내적 형상

하나님에게는 내적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은 어떤 형태를 가진 꼴을 말합니다. 이는 형의 요소라고 하며, 관념과 개념과 원칙과 수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翻訳】

内的形状

神様には内的形状があります。形状はどのような形態を持つのかという格好をいいます。これは形の要素というものであり、観念と概念と原則と数理がこれに該当します。

관념은 구체적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먼저 구상을 하신 후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먼저 머릿속에 구상을 합니다. 하나님도 존재세계를 만들어갈 때 먼저 하나하나 구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표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구상해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든 기능은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상했습니다. 눈과 코를 어디에 붙일 것인지 구상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사물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에 눈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코를 한 가운데에 종적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귀를 양쪽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체 하나하나 구상했습니다.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형상 속에 있는 하나의 꼴, 즉 형상이 구체적인 표상인데, 그것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翻訳】

観念は具体的表象です。神様の創造をおいてみれば、神様は先に構想をした後、全てのものを創造しました。私たちが家を建てようとするなら先に頭の中に構想をします。神様も存在世界を作っていく時、まず一つ一つを構想をし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が具体的な表象です。

神様が人間を作る時、具体的に構想して創造しました。男と女のすべての機能は同じだが最も重要な

が生殖器です。生殖器をどこに作るのか具体的に構想しました。目と鼻をどこに付けるのか構想しました。焦点が合わなければ事物を正確に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前に目を二つ付けました。そして鼻を真中に縦的にたてました。その次に耳を両側につけました。神様はそのような人体一つ一つを構想しました。そのまま創造したのではないという話です。

神様の内的形状中にある一つの格好、すなわち形状が具体的な表象となるので、それを観念といいます。

개념은 추상적 표상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다.'하면 그것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개'라는 이름 자체는 추상입니다. 개는 개인데 진돗개인지 삼살개인지, 어떤 종류의 개인지를 밝히는 것은 구체적 표상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추상적이지만 남자 또는 여자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개념은 이러한 구체적인 표상을 갖기 전에 나타나는 추상적인 표상입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을 때 개념이 관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 【翻訳】

概念は抽象的表象です。例えば'動物だ。'といえ、それは抽象的な表現です。'犬'という名前自体は抽象です。犬は犬なのに珍島犬なのか、むく毛犬なのか、どんな種類の犬なのかを明らかにするのは具体的表象です。人といえば抽象的ですが男性または、女性だといえ、もう少し具体的になります。概念はこのような具体的な表象を持つ前に現れる抽象的な表象です。抽象的であることを具体的に表現した時、概念が観念で現れることになるのです。

원칙은 법칙을 말하는 것인데, 원칙에는 자연법칙과 가치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법칙은 우주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이외에도 아홉 개의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또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고 있습니다. 수억만년이 지났어도 태양계가 돌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법도는 어김이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질서와 법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와 법도대로 운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우리인간도 그러한 법칙에 의해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에 대한 생활의 법칙, 규범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규범이 있고, 친구 사이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이웃과 이웃 간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 【翻訳】

原則は法則をいうことであり、原則には自然法則と価値法則、二種類があります。

自然法則は宇宙のすべての秩序と法則をいいます。例えば太陽系を見れば、太陽を中心として地球が回っています。地球も太陽の周囲を回って自転をしています。地球以外にも9つの惑星が太陽を中心として回っています。また、地球を中心に月が回っています。数億万年が過ぎても太陽系が回るのは変わることがありません。宇宙の秩序と法度を破ることがありません。すべての存在の秩序と法度は神様が作られた原理と法度のとおり運行します。それがまさに自然法則です。

私たちの人間もそのような法則によって生きていきます。家庭でも両親と子供に対する生活の法則、規範があります。夫婦の間にも規範があります。兄弟の間にも規範があつて、友人の間にも規範があります。隣人と隣人との間にも規範があります。

하나님께서 우주와 같은 외적 환경을 만들어놓으시고 그 존재세계의 주인으로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법도를 무시하고 살도록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자연환경의 법칙에 순응해야 할 욕신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가치법칙이 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논하는 것도 가치지만 여기서는 윤리적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이 윤리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가치 없는 인간이 됩니다. "저 사람 쓸모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형편없어,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니 상대하지 마라."는 등의 욕설을 듣는 것은 인간으로서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翻訳】

神様が宇宙のような外的環境を作っておいて、その存在世界の主人として作りました。それでも人間が法度を無視して生きるように作ったのではないです。人間も自然環境の法則に順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身体があります。人間の心も神様の法に従って生き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また人間には価値法則があります。商品の価値を論じるのも価値ですが、ここでは倫理的価値をいいます。人が倫理的価値をなくせば価値のない人間になります。"あの人は使い道のない人だ。あの人は思わしくなくて、ゴミと同じ人だ。価値がない人なんかと相手にするな。"などの悪口を聞くのは、人間として倫理的に人間らしく生きられずにいるという話です。

윤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비록 휠체어를 타고 다니더라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안됐구나,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윤리의 토대가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원칙을 지키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법칙과 원칙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법칙과 원칙에 따라 살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오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해도 내가 원칙에 따라 생활하지 않은 때는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밀어내버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느냐? 창조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때 그 원칙이 인간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고통이 옵니다.

## 【翻訳】

倫理的な生活をしているならば、たとえ車椅子に乗って通っても"あの人が本当に良い人だ。あの人が本当に気の毒なんだなあのような人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ます。そのような倫理の土台が神様の中にあります。

神様もその原則を守って存在します。神様は秩序と法則と原則の神様なので、私がその法則と原則に従って生きるならば神様は自動的に現れて共にします。私がいくら"神様来てください。私を助けてください。"と言っても、私が原則に従った生活をしていない時は神様は助けてくださることはできません。かえって環境が押し出してしまいます。私たちの人間になぜ苦痛がくるのか? 創造主の原則に背いた時、その原則が人間を排斥するためです。そこから苦痛が来ます。

하나님은 수리의 하나님입니다. 나타나는 것은 모두 수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고도의 수학자이자 고도의 과학자이며 고도의 예술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모든 존재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미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만들거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도 수리적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성상적인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만물은 모두 수리적으로 존재합니다.

창조하려면 먼저 구상을 해야 합니다. 구상은 추상적이지만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구체화된 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는 수리적인 법칙을 따릅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이런 고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 【翻訳】

神様は数理の神様です。現れるものは全部、数理的に表現されるのです。したがって神様は高度な数学者であり、高度な科学者であり、高度な芸術家です。神様に似られておかれたすべての存在は美しくないものはありません。皆が美の対象で、愛の対象で、喜びの対象になるのです。宇宙船を作ったり人工衛星を作る技術も数理的に表現されます。それがまさに神様の性状的な内部で成り立っているのです。したがって被造万物は皆数理的に存在します。

創造するには先に構想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構想は抽象的ですが、それがどんどん具体化されて現れます。具体化されたのが実体で現れる時は数理的な法則に従います。創造には必ずこのような高度な法則があります。

## (4)하나님의 정체

첫째,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본성상의 본질적 요소가 심정과 참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를 말하려면 맨 먼저 심정과 참사랑이 나옵니다.

【翻訳】

(4)神様の正体

最初に、神様は心情と真の愛の本体です。神様の心である本性相の本質的要素が心情と真の愛なので神様の正体をいうには一番先に心情と真の愛が出てきます。

둘째, 하나님은 지정의와 진미선의 본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의 3 대기능은 지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 지정의는 하나님의 본성상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翻訳】

二番目に、神様は知情意と真美善の本体です。一般的に心の3大機能は知情意だと見えています。原理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の中には知情意があります。その知情意は神様の本性相を成す要素です。

셋째, 하나님은 원리와 법도와 절서의 근원이신 원리의 본체입니다.

【翻訳】

三番目、神様は原理と法度と節序の根源である原理の本体です。

넷째, 하나님은 참사랑과 참혈통의 근원이신 절대성의 본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성의 본체로 계신 이유는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본체요,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사랑과 참생명은 절대성을 통해서 참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참아버지의 절대성 정자는 참사랑의 씨이고, 참어머니의 절대성 난자는 참생명의 몸입니다. 참생명의 몸인 참어머니의 절대성 난자는 참아버지의 절대성 정자인 참사랑의 씨를 받아서 비로소 혈통을 잇게 되는데, 그 혈통은 참사랑과 참생명이 결합된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곳이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생식기는 절대성을 가져야 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본체요 근원으로 계신 하나님을 닮은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실제로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翻訳】

四番目、神様は真の愛と真の血統の根源である絶対性の本体としておられます。神様が絶対性の本体としておられる理由は神様は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の本体で、根源なられる方であるためです。

真の愛と真の生命は絶対性を通じて真の血統につながります。真のお父さんの絶対性の精子は真の愛の種であり、真のお母さんの絶対性の卵子は真の生命の体です。真の生命の体ある真のお母さんの絶対性の卵子は真のお父さんの絶対性の精子である真の愛の種を受けてはじめて血統をつなぐことになりますが、その血統は真の愛と真の生命が結びついたところから出発します。それが男と女の生殖器です。それで生殖器は絶対性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し、純潔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私たちの人間が真の愛と真の生命と真の血統の本体であり、根源としておられた神様に似た位置に立ち、ひいては神様の許諾を受ければ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を実体で繁殖することになります。したがって神様の絶対性の本体に似た絶対性の実体になるのです。

다섯째,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선으로 작용합니다. 절대적인 양심의 본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翻訳】

五番目、神様は良心の主体です。人間は誰にでも善を追求する良心があります。その良心の主体がまさに神様です。神様は私たちの胸中で善として作用します。絶対的な良心の本体が神様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여섯째,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요, 근원자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생명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줄기세포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자체도 인체의 생명단위인 세포를 증식해서 치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생명체의 요소를 번식하거나 증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체인 자녀가 나오지만 그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의 씨인 정자와 생명의 몸인 난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본체 속에 있던 두 요소가 실체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 【翻訳】

六番目、神様は生命の本体で、根源者です。人間はいくら科学と医術が発達しても生命を創造できません。生命の根源は神様です。幹細胞で患者を治療するといいますが結局それ自体も人体の生命単位である細胞を増殖して治療することに過ぎません。

神様が作っておいた生命体の要素を繁殖したり増殖するのは可能ですが全く何もない位置で生命体を作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は生命の本体が神様であるためです。

男と女の愛によって新しい生命体である子女が出てきますが、その男と女も神様の中から出てきたのです。また、その中に潜在されている生命の種である精子と生命の体である卵子もやはり同じことです。神様の本体の中にあつた二つの要素が実体を通じて出てくるので、結局生命の主人は神様なのです。

일곱째,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자존자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유일하기 때문에 나왔고, 영원이라는 말은 불변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을 놓고 보면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꼴이 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은 꼴을 가진 요소로서 몸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규정은 못하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몸 안에서 무소부재한 존재입니다. 마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언제 어디에서나 작용합니다.

#### 【翻訳】

七番目、神様は絶対、唯一、不変、永遠な自存者で、無所不在の方です。絶対という言葉は唯一であるので出てきたし、永遠という言葉は不変であるので出てきました。あらゆる分野で相対的なことなく絶対、唯一、不変、永遠性を有しているので神様は絶対者であられ、自ら存在される自存者です。

神様が無所不在されるという言葉はおられないところがないという意味です。私たち、人間において見れば体は見られますが心は見られません。心は格好がありますが実体がありません。心は格好を持つ要素として体の中で作用するということです。どこの誰もが、心がどこにあるのかと規定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心はあります。心は体の中で無所不在のした存在です。心は頭からつま先まで、いつでもどこでも作用します。

그렇다고 마음이 육신 안에만 국한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벗어난 우주 공간 어디서든지 활동할 수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마음은 육신에서 무소부재하지만 육신을 벗어나서도 어디서든 활동하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몸 안에서 무소부재하고 몸 밖에 나가서도 원리본체가 지어놓은 우주 공간 어디서든지 작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천주를 계신 하나님은 천주의 어디든지 운행하고 작용하십니다. 한곳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개념은 무형세계를 뜻하고, 땅은 지상세계를 말합니다. 우주 공간과 무형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翻訳】

それで心は体の中にだけ限定されて存在はしません。体を抜け出した宇宙空間のどこでも活動できる属性があります。心は体で無所不在であり、体を抜け出してもどこでも活動して運行できます。心は体の中で無所不在であり、体の外に出て行っても、原理本体が作っておいた宇宙空間のどこでも作用できる存在です。そのような要素が神様からきているのです。

天宙におられた神様は天宙のどこにでも運行して作用します。一ヶ所にだけおらる神様ではありません。聖書マタイによる福音書 6 章 9 節に'天にいらっしゃる私たちのお父様!と'言いました。天という概念は無形世界を意味しており、地は地上世界をいいます。宇宙空間と無形世界を合わせて天宙といえます。神様は天宙の中におられないところがない無所不在の方なのです。

여덟째,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요, 낮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참 부모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이시고, 참부모님의 조상이십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을 달리 표현하면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보이지 않던 형체가 낮이면 드러나는 것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되는 성상적인 밤의 하나님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이 되는 형상적인 낮의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몸의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동기는 밤의 하나님입니다. 밤의 하나님 속에 정해진 구상, 즉 추상적인 관념이 하나의 원칙과 수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낮의 하나님입니다.

【翻訳】

八番目、神様は夜の神様であり、昼間の神様としておられます。また、神様は万王の王であり、真の父母です。また、神様はイエス様の先祖であり、真の御父母様の先祖でいらっしゃいます。

本性相と本形状を別に表現すれば夜の神様と昼間の神様ということが出来ます。夜には見られなかった形体が昼になると現れるのを比喻した表現です。それが心の神様、体の神様です。

神様は心にあたる性相的な夜の神様を実体化するために神様の体になる形状的な昼の神様を創造しました。自ら体の神様を創造されたのです。その動機は夜の神様です。夜の神様の中に決まった構想、すなわち抽象的な観念が一つの原則と数理によって具体的に現れたのが昼間の神様です。

몸의 하나님도 무형이기 때문에 실체를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되도록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아담과 해와는 제대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은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4 대심정권을 닮아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룬 심정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고,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닮아야 합니다. 마음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 즉 몸이 됩니다. 낮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인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개인적으로 마음과 몸이 통일되고 그런 남자와 여자가 통일체가 되면, 하나님도 두 속성의 본체로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하나님인 밤의 하나님과 몸의 하나님인 낮의 하나님이 통일체가 됩니다.

【翻訳】

体の神様も無形なので実体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あなたの体になるようにアダムとエバを作りました。神様の体であるアダムとエバは正しく見れば神様の息子、娘です。

神様の息子、娘は心を通じては神様の 4 大心情圏に似て、神様と一体を成し遂げた心情の位置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くて、体を通じては神様の絶対性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心と体を通じて神様に似た神様の実体になるのです。

創造されたアダムとエバが完成すれば神様の子女になり神様の聖殿、すなわち体になります。昼の神

様、体の神様の実体になるのです。神様の実体であるアダムとエバが完成して個人的に心と体が統一されて、そのような男と女が統一体になれば、神様も二つの属性の本体としておられるので、心の神様である夜の神様と体の神様である昼の神様が統一体になります。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소 또는 무한대의 영으로 계십니다. 힘으로 볼 때도 무한소 또는 무한대의 힘으로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천주의 핵이고 모든 존재의 핵입니다. 그 핵은 한점과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천, 수만, 수억 킬로미터를 가더라도 그 점은 존속합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영으로 계시지만 무한소의 영으로도 계십니다. 또 무한대의 힘으로 계시지만 무한소의 힘으로도 계십니다. 그만큼 존재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폭을 지닌 무한대의 영과 무한대의 힘으로 계십니다. 힘의 본체로 계시고 존재세계의 핵으로 계신 것입니다.

#### 【翻訳】

そして神様は無限小または、無限大の霊としておられます。力で見るときも無限小または、無限大の力としておられます。

一言で言うと神様は宇宙の核であり、すべての存在の核です。その核は一点と同じです。肉眼では見られませんが、数千、数万、数億キロメートルを行ってもその点は存続します。神様は無限大の霊としておられますが、無限小の霊としてもおられます。また、無限大の力としておられますが無限小の力としてもおられます。それだけ存在の幅が大きいということです。神様は無限の幅を持った無限大の霊と無限大の力としておられます。力の本体とおられ、存在世界の核としておられたのです。

하나님은 모든 힘의 본체이신데 그 힘이 심정과 참사랑, 지정의와 진미선, 원리와 법도와 질서, 영원, 불변, 절대, 유일, 무소부재의 자존성,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뿌리가 되는 절대성 등 하나님의 본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대의 힘은 순수한 물질적 요소이지만,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영은 마음의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다의 부모입니다. 심정의 아버지요, 참사랑의 아버지요, 인격의 아버지요, 절대성의 본체로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은 나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나의 참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참자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닮고, 참사랑을 닮고, 인격을 닮고, 절대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 【翻訳】

神様はすべての力の本体なのに、その力が心情と真の愛、知情意と真美善、原理と法度と秩序、永遠、不変、絶対、唯一、無小富材の自尊性、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の根元になられ、絶対性などは神様の本性から出発します。それで神様は良心の主体であり、生命の根源になるのです。無限大の力は純粹な物質的要素ですが、中心となって主体になる霊は心の要素です。

結論的に、神様は私のお父さんで、皆さんの父母です。心情のお父さんであり、真の愛のお父さんであり、人格のお父さんであり、絶対性の本体としておられるお父さんです。それでその方は私のお父さんであると同時に私の真の父母です。したがって私は神様の真の子女です。それは神様の心情に似て、真の愛に似て、人格に似て、絶対性に似たためです。

## 2.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神様と人間の関係)

현실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삶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세계의 본체로서 구상과 설계에 따라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과 만물을 포함한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세계의 창조는 본체 되시는 하나님의 자기전개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과 창조성까지 닮은 걸작품입니다.

#### 【翻訳】

現実世界で最も重要なのは存在と関係の問題です。神様の存在は私たちの人間の生に重大な意味を

付与します。すでに明らかにしたように神様は存在世界の本体として構想と設計により、あなたに似た姿で人間と万物を含んだ被造世界を創造しました。

被造世界の創造は本体になられる神様の自己展開です。それですべての被造物は神様に似ました。特に人間は神様の心情と創造性まで似ている傑作作品です。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참사랑을 실현할 상대를 찾아 세우고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만물의 관계, 인간과 만물의 관계가 현실세계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몸의 관계이며, 둘째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 【翻訳】

神様の創造には目的があります。真の愛を実現する相手を探してたててその愛を持続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のです。それは関係を通じて成り立ちます。したがって神様と人間の関係、神様と万物の関係、人間と万物の関係が現実世界の重要な問題というものです。その中で神様と人間の関係はすべての関係の核心といえます。

神様と人間の関係は大きく二種類で説明できます。最初は心とからだの関係であり、二番目は父子の関係です。

### 1) 마음과 몸의 관계 (心と体の関係)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무형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몸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을 닮은 제 2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몸 자체가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몸은 보이는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주체요, 보이는 몸이 대상으로서 이 둘은 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요, 보이는 실체의 인간은 몸의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일체입니다.

#### 【翻訳】

神様と人間の関係は心と体の関係と同じです。心は見られませんが厳格に存在する無形の実体です。私たちは見える体を通じて見えない心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心は体を通じてその意を現わします。それで体は心に似た第2の心です。

心と体は離そうとしても離すことはできない不可分の関係です。それでも体自体が心ではありません。心は見えない部分で体は見える部分であり、見えない心が主体で、見える体が対象としてこの二つは一体です。神様と人間の関係も同じことです。見えない無形の神様は心の神様で、見える実体の人間は体の神様です。私の中で心と体が一体になっているように神様と人間も何の相関もない別個の存在でなく一体なのです。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녔으므로 인간이 완성하면, 제 2의 하나님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신성하듯이 인간도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기에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하나님같이 보고,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고, 그 사람의 신성과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翻訳】

完成した人間は神樣的価値を持ちます 私たち人間は神樣的価値を持っているので人間が完成すれば、第2の神様になります。人間は神様の分身と同じ存在であるので神様が神聖のように人間も神聖な存在です。神様が絶対、唯一、不変、永遠の価値を持たれた方なので、神様に侍って生きれば人間も絶対、唯一、不変、永遠の価値を持った存在になります。したがって私たちは自分以外の人を神様のようになって、その人の話を神様の言葉として聞いて、その人の神聖と価値と尊厳性を尊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지식이 있어서 가치가 높고 권력이 있어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고 권력이 없어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가치는 존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몸과 같은 인간이 없으면 당신의 뜻과 이상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만물을 통해서도 표현되지만 그것은 상징적이에요 추상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은 심정과 사랑이 교감되는 대등한 상대를 통해서만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 【翻訳】

知識があるから価値が高い、権力があるから偉大だというではありません。知識がなくて権力のない乞食と変わらない生活をしていても人間は神樣的価値を持ちました。人間はいくら不足した姿をしていてもその価値は尊厳です。それは神様に似た実体であるためです。

体がなければ見えない心を表現する方法がないです。同じように神様も体と同じ人間がなければあなたの意志と理想を表現する方法がないのです。それで神様には人間が最も大事な存在です。もちろん神様の二性性相が万物を通じて表現されるのですが、それは象徴的です、抽象的な表現に過ぎません。神様の二性性相は心情と愛が交感される対等な相手を通じる時のみ、実体的に具体的に表現されるのです。

#### (1) 종적인 사랑, 횡적인 사랑

하나님은 참사랑을 통해서 모든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사랑이 통할 수 있는 직단거리는 마음과 몸이 일체된 자리입니다. 본래 아담(남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남성은 참사랑을 이루는 직단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종적인 사랑입니다. 종적인 사랑은 부자의 관계,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의 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참사랑은 종적인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적인 사랑으로는 부자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고 사랑의 터전을 넓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타날 수 없고 절대성의 기반이 확대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한한 실체의 사멸과 함께 하나님의 참사랑도 종식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횡적인 사랑입니다.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은 여성인 해와입니다.

#### 【翻訳】

#### (1) 縦的な愛、横的な愛

神様は真の愛を通じてすべての存在と関係を結ぶことになりますが、神様の真の愛は直断距離を通じて成り立ちます。真の愛が通じることができる直断距離は心と体が一体になった位置です。

本来アダム(男性)は神様の息子であり神樣的価値を持った神様の体です。神様と神様の形状である男性は真の愛を成し遂げる直断距離にあるのです。そのような位置で成り立つ愛が縦的な愛です。縦的な愛は父子のの関係、心と体の関係でこの二つを一つに作る統一の軸です。

それでも神様の真の愛は縦的な愛だけで完成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縦的な愛では父子の関係を持続させることができず、愛の根拠地を広げることもできません。神様の永遠性が現れることができず、絶対性の基盤が拡大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意味です。有限な実体の死滅と共に神様の真の愛も終息してしまいます。ここで必要なことが横的な愛です。アダムに愛の対象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味です。その

対象は女性であるエバです。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해와를 찾아줌으로써 창조목적を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참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 그리고 본양성과 본음성을 닮은 제 2의 하나님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상과 설계에 따른 자기전개가 실현되고, 인간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적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참사랑의 대상인 해와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성서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해와를 지었다.'(창세기 2 장 21-23 절)고 했습니다. 그것은 해와의 가치가 아담의 다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먼저 해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지을 때 벌써 해와의 창조를 선유했다 그 말입니다.

#### 【翻訳】

神様はアダムに愛の対象としてエバを探し立てることによって創造目的を完成できます。アダムとエバが本来の姿に成長して真の愛で一つになれば神様の本性相と本形状、そして本陽性と本陰性に似た第2の神様が出現するのです。それで神様の構想と設計にともなう自己展開が実現されて、人間にははじめて神様の価値が付与されます。それでアダムには真の愛の対象であるエバが最も大事な存在です。

聖書には'神様がアダムを先に作ってアダムの肋骨を取ってエバを作った.'(創世記 2 章 21-23 節)とありました。それはエ바の価値がアダムの次にくる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神様の心の中には先にエバがいたということです。アダムを作る時、すでにエバの創造を先惟していたという話です。

앞(1. 하나님의 이성성상)에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시지만 격위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라고 했습니다. 남성격 주체인 하나님에게는 그 대상인 여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해와의 창조를 선유하고 거기에 맞도록 아담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인 동시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현현하는 의식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실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결혼을 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영계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제 2의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의 영인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翻訳】

前(1.神様の二性性相)で'神様は二性性相の中和的統一体とおられますが格位的に見る時には男性格主体'といいました。男性格主体である神様には、その対象である女性が先なのです。それでエバの創造を先惟して、そこに合うようにアダムを作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アダムとエバの結婚は神様の結婚であると同時に神様が実体的に顕現されるという意識です。その時までは神様の実相を見ることができる人がいなかったのですが、アダムとエバが完成して結婚をすれば、はじめてすべての人が霊界で神様を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無形の神様が現れるのではなく、代わりに第2の神様であるアダムとエバの霊人体が現れるということです。

아담과 해와가 타락(타락론에서 밝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몸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출애굽기 3 장 2-4 절), 우레나 번개나 나팔 소리나 연기로 나타나셨습니다(출애굽기 20 장 18 절).인간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완성해서 결혼할 경우, 남성(아담)은 하나님의 몸과 같고 그 상대인 여성(해와)은 하나님의 아내와 같습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동시에 아담의 아내도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 아담과 해와가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은 비록 아담과 해와 두 사람이 나누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실체인 아담과 생식기와 무형인 하나님의 생식기가 일체를 이루어 해와와 사랑을 나누는 격이 됩니다. 그렇게 아담과 해와가 하나 되었을 때, 그 가정의 이상은 하나님의 가정 이상이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 【翻訳】

アダムとエバが墮落(墮落論で明かす)により神様の体と同じ姿がならなかったために、今まで誰も神様を見た人がいないのです。旧約時代にも神様は火花で現れたり(出エジプト記 3 章 2-4 節)、雷や稲妻やラッパ音がする演技で現れました(出エジプト記 20 章 18 節)。人間が神様の実体にならなかったために神様は万物の形状で現れ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人間が完成して結婚する場合、男性(アダム)は神様の体と同じで、その相対である女性(エバ)は神様の妻と同じです。エバは神様の妻になると同時にアダムの妻にもなるのです。夫婦になったアダムとエバが愛を分かち合えば、その愛はたとえアダムとエバと二人が分けることだとしても、内的には実体であるアダムと生殖器と無形である神様の生殖器が一体を成し遂げ、エバと愛を分かち合うようになります。そのようにアダムとエバが一つになった時、その家庭の理想は神様の家庭理想であり、そこで生まれた子女は神様の子女になります。

## 2) 부자의 관계 (父子の關係)

존재세계에는 많은 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본적인 법도는 부자의 법도입니다. 천지의 근본이 부자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평생 동안 수고하며 길러주신 이상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자리에서 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지체 내에서 벌어지는 내,외적인 관계이고, 부자의 관계는 외부의 실체세계에서 벌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부자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관계가 보이는 외부의 관계로 전개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출발한 참사랑이 참생명으로 전개되고 다시 참혈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부자의 관계입니다.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직단거리를 통해 참사랑을 연결하는 존재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 【翻訳】

存在世界には多くの法度があります。その中で根本的な法度は父子の法度です。天地の根本が父子関係です。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子供を産んで、一生の間苦労して育てられた以上にその両親を愛して尊敬して大切にする人は神様の息子、娘という本来の位置に戻ることができます。したがって本来の位置で見た神様と人間の関係は父子の関係なのです。

体と心の関係は肢体の内で広がる内・外的である関係であり、父子の関係は外部の実体世界で広がる人と人の関係です。父子の関係は見えない内部の関係が見える外部の関係に展開したものです。見えない神様の心情から出発した真の愛が真の生命に展開して再び真の血統に連結されることが父子の関係です。真の愛は直断距離を通じます。したがって父母と子女は直断距離を通じて真の愛を連結する、存在世界で最も近い関係です。

## (1) 자녀가 생기는 네 가지 원칙

첫째,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동참한 자리에서 자녀가 생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리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개입할 수 없고, 부모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부모고 절대적인 사랑을 하는 자리에서만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는 자리에서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동참한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생명이 부모의 사랑에서 왔으니 사랑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 【翻訳】

## (1)子女ができる四種類の原則

まず、子女は父母の愛によってできました。父母の愛に参加した席で子女ができます。お父さんとお母さ

んが愛する席は誰も介入できません。子女も介入できず、父母も介入できません。父母が絶対的に愛する席だけで子女ができるのです。父母の愛がない席では子女ができません。子女は父母の愛が参加した席で誕生しました。したがって子女は偉大な存在なのです。生命が父母の愛からきたので、愛だけが生命の根源になるのです。

'사랑이 먼저냐, 생명이 먼저냐'를 따진다면 사랑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있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게 된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내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을 찾아가면 아버지 사랑의 본체도 한 분이요, 어머니 사랑의 본체도 한 분입니다. 그 분은 존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의 요소와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 그리고 본양성과 본음성이라는 이성성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분립해서 실체화한 것이 바로 아버지(남성)와 어머니(여성)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 【翻訳】

'愛が先か、生命が先か'を問い詰めるならば愛が先です。生命があるので愛もあるという人も多いですが、そうではありません。生命があるようになった根源は愛です。愛によって私ができました。お父さんとお母さんの愛は違います。根本を訪ねて行けばお父さんの愛の本体も1人で、お母さんの愛の本体も1人です。その方は存在の本体であられる神様です。

そのために神様の中にはお父さん、お母さんの要素と属性がすべて入っています。それが神様の本性相と本形状、そして本陽性と本陰性という二性性相です。その神様の二性性相を分立して実体化したのが、まさにお父さん(男性)とお母さん(女性)です。したがってお父さんとお母さんの愛も神様の愛から出発したのです。人間は神様の愛を完成するために存在するのです。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소생적 사랑이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딸에 대한 사랑은 장성적 사랑입니다. 장성적 사랑을 통해 손자와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손자와 손녀에 대한 사랑은 완성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지만 혼자시는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자녀가 결혼해서 아들딸(손자, 손녀)을 낳아야 합니다.

#### 【翻訳】

神様の愛をおいてみれば、神様の子女である男性と女性の愛は蘇生的愛であり、そこで生まれた息子娘に対する愛とは長成的愛です。長成的愛を通じて孫と孫娘が生まれた時、その孫と孫娘に対する愛は完成的愛です。

神様は愛の本体ですが一人の時は愛の結実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子供がい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必ずその子供が結婚して息子娘(孫、孫娘)を産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둘째, 자녀는 부모의 것으로 생겼습니다. 나의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생명의 씨인 0.1 퍼센트의 정자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정자를 받아서 99.9 퍼센트의 뼈와 살과 피와 성격까지 전부를 투입하면서 열 달 동안 복중에서 기릅니다. 모든 생명체는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위대한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 인해 생기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의사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니다. 나의 마음이 개입되어 내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모로 인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주로 한 개인주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려면 부모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부모로부터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부모로부터 생기고 복중에서부터 성숙해서 지상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태어납니다. 부모를 근본으로 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翻訳】

二番目、子女は父母のことでできました。私のことは初めから何もありません。お母さんは愛を通じてお父さんから生命の種である 0.1 パーセントの精子を受けます。お母さんはお父さんから精子を受けて 99.9 パーセントの骨と肉と血と性格まで全部を投じて十ヶ月の間、腹中で育てます。すべての生命体はお母さんを通じずには絶対生ま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そのためにお母さんが偉大なのです。

私は父母によってできて生まれました。ここには私の意志が介入しなかったです。私の心が介入して私ができたのではないです。完全に父母によって生まれました。そのために愛を主とした個人主義はありえません。本来の人間に戻るためには父母主義に戻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すべての生命体は父母から誕生したと呼ぶことができます。

私たち、人間も父母からできて腹中で成熟して地上生活ができる準備をして生まれます。父母を根本として誕生したので子女は父母の完全な姿に似て生まれました。なので自分のことは一つもありません。

셋째, 상대를 위하여 생겼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살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 생길 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위하여 생겼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생겼습니다. 또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생겼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설계도가 이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길 때부터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를 위해서 생겨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창조의 설계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한 요한복음 14 장 20 절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안으로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서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 【翻訳】

三番目、相手のためにできました。男性は女性のために生まれました、女性は男性のために生まれました。したがって男性は女性のために生きて、女性は男性のために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生まれる前から、腹中でできる時から男性は女性のためにでき、女性は男性のためにできました。また、子供は父母のためにでき、父母は子供のためにできました。

神様の創造理想、神様の創造された設計図がすでにそうになっています。なので生まれる時から男性は女性のために、女性は男性のために、父母は子供のために、子供は父母のためにできました。全てのものが相手のために生じたことは神様がたてて下さった創造の設計図がそうになっているためです。

神様の中で生きるためには私も神様、お父様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がお父様の中に、お前らが私の中に、私がお前ら中にあるのをお前らが分かるだろう。'というヨハネの福音書 14 章 20 節の御言はお父様が私の中に訪ねてくるという言葉です。今まで人類歴史上、数多くの人がその場を占めようと努力しましたが、実在でその場を占めた人はいません。神様は分からなくてその場まで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넷째, 영생을 위하여 생겼습니다. 영생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상생활이 중요하게 느껴지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일생 동안 수고합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 년이 지나면 다 이 지상에 두고 가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다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 세계가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

니다. 피할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翻訳】

四番目、永生のためにできました。永生のために生きるということはとても重要です。地上生活が重く感じられると私たちは生きるためにもがきます。人々は一つの名譽を得るためにも一生の間苦勞します。いくら苦勞して名譽を得たとしてもそれは 100 年が過ぎればみなこの地上に置い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永遠の世界は私たちが考えるそのような世界ではありません。永遠の世界は存在してなくなることもせず、その世界が嫌いだと逃げることもできません。大変だといって死ぬことができるそのような世界ではありません。避けることもできなくて、なくなることもない世界です。そのために永遠の世界があるという事実を知って生き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です。

人間은 본래 영생을 위해 생겼습니다. 속사람인 영인체는 육신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형성됩니다. 인간은 영생을 위해서 생겼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계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부정하다가, 신앙에 입문해 정신을 차리고 영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참사랑은 구불구불 가는 것이 아니라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본체 속에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직단거리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한 점, 해와도 한 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두 속성이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로서 실체화하는 자리가 아들딸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참사랑의 직단거리입니다.

#### 【翻訳】

人間は本来、永生のために生まれました。中の人である霊人体は身体ができるのと同時に形成されます。人間は永生のために生まれたという事実を確かに分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世の中に生まれましたが、神様を分からないので霊界もなく、神様もないと否定して、信仰に入門して気がついて霊界に対する準備をする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人間は生まれる時から霊界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準備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真の愛はくねくねと行くことでなく直短距離を通じます。真の愛は神様の本体の中にある愛なので、その愛が直短距離を通じるということです。その点は一つしかないのです。アダムも一点、エバも一点です。神様の中にある男性と女性の二つの属性が真のお父さんと真のお母さんとして実体化した位置が息子娘の位置です。その場が真の愛の直短距離です。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하나님을 닮은 절대성의 실체가 되면, 그 둘은 만나서 참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닮은 실체의 재창조가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한 점에서 두 점으로 연결되어 직선이 됩니다. 두 점만으로 연결된 선은 영원성을 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점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두 점은 원을 형성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갖게 됩니다. 언제, 어디든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늘 하나입니다. 중심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중심도 하나, 해와의 중심도 하나, 그 둘이 만나도 중심은 하나뿐입니다. 그 한 중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부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누구도 뿔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 【翻訳】

アダムとエバが完成して神様に似た絶対性の実体になれば、その二人は会って真の愛で一つになります。そこから神様に似た実体の再創造が広がります。その時から一点が二点に連結されて直線になります。二点だけで連結された線は永遠性を帯びることができません。しかし一点である神様を中心に形成された二点は円を形成するので永遠性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いつでも、どこでも中心がありますが、その中心はいつも一つです。中心は二つになれないのです。アダ

ムの中心も一つ、エバの中心も一つ、その二人が会っても中心は一つだけです。その一つの中心が永遠なる神様です。神様は私たちの父母です。父子の関係は絶対的な縦的關係なのでその関係は誰も離すことができないし、否定できません。

그러므로 천지는 변하더라도 부모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자리는 천지가 변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사랑은 횡적으로 보더라도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그래서 참사랑에는 잘못된 사랑이나 거짓된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완성한 아담은 하나님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완성한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부인도 되기 때문에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翻訳】

したがって天地は変わっても父母は変更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父母と子女という位置は天地が変わっても変更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真の愛は横的に見えても直短距離を通じます。それで真の愛には誤った愛や偽りになった愛が入る位置がありません。

完成したアダムは神様の体であり神様の息子であると同時に完成したエバとは神様の娘であり妻にもなるために完成したアダムとエバは神様と共に永生できるのです。

따라서 아담과 해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 되고, 아담과 해와가 결혼하는 시간은 실체 하나님이 현현하는 순간입니다. 또 아담, 해와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체를 쓰고 실체로 한번도 사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자의 먼 여행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나서 생식기를 통해 씨를 심어 영원히 계대를 번식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면 영원히 한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체를 쓰고 정자를 심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딸이라 할 수 있는 실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참부모님이 현현 하심으로 한스러운 역사가 마감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 【翻訳】

したがってアダムとエバとの結婚は神様の結婚になり、アダムとエバが結婚する時間は実体の神様が顕現する瞬間です。また、アダム、エバとの初恋は神様の初恋になります。しかし人間が墮落す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神様は今まで体を使って実体で一度も愛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それで神様の精子の遠い旅路の道が始まったのです。

男性が生まれて生殖器を通じて種を植えて永遠に継代を繁殖したいのですが、そう出来ないならば永遠に恨を抱くことになることです。神様は今まであなたの体を使って精子を植えて、永遠の神様の息子娘といえる実体を持つ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ところが、この地に真の御父母様が顕現されることによって、恨めしい歴史が締め切れ、はじめて神様の理想が実現されるのです。

### (2) 인간 최고의 소망

모든 자녀는 부모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모도 자녀가 있어야 존재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사람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소망은 좋은 신랑, 또는 좋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기 나름대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 【翻訳】

### (2)人間最高の希望

すべての子女は父母がいてこそ存在します。父母なしでは存在できません。一方、父母も子女がいてこそ存在します。

人は必ず誰かの子女として生まれます。人を生きてゆくなかで希望することが多いのですが、その中で一番重要な希望は良い新郎、または、良い新婦になることです。ある人は知識を、ある人はお金を、ある人は

権力を、ある人は名誉を自分自ら希望することができます。

부모도 자식을 대해 '이 아이는 용모가 단정하고, 말을 잘하고,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었으니 훌륭한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적인 소망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먼저 좋은 신앙감, 또는 좋은 신부감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들이 태어나면 좋은 신랑감으로 키워야 하고, 딸이 태어나면 좋은 신붓감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 자녀는 아들로 태어났으면 좋은 신랑감이 되어야 하고, 딸로 태어났으면 좋은 신붓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붓감으로 자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자란 남성과 여성이 만나면 참된 부부가 되고 나중에는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翻訳】

父母も子女に対してこの子供は容貌が端正で、話を上手にして、出して自慢することができる人柄を備えたので立派な大統領や長官になったら良いだろう。'という希望を持つことができます。いくらそのような希望を持つとしてもそれは外的な希望に過ぎません。子供はまず良い花婿候補、または、良い花嫁候補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父母は息子が生まれれば良い花婿候補に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し、娘が生まれれば良い花嫁候補者に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子女は息子に生まれたら良い花婿候補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娘に生まれたら良い花嫁候補者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が最初の希望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良い学閥を持つことが問題ではなく良い花婿候補、良い花嫁候補者に育つことが優先です。そのように育った男性と女性が出会えば真の夫婦になり、後には真の父母になるのです。

가정에서 자녀가 '나는 커서 우리 아빠,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하는 뜻대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딸이 '아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면 나는 평생 행복하겠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행복하시구나.'하고 또 아들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 평생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아버지도 행복하시구나.'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사람이 다 컸다고 해서 모두 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올바른 사람입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붓감이 되고, 그 다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사랑을 하여 아들딸을 낳게 되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것이 인생길입니다.

【翻訳】

「家庭で子供が『私は大きくなってうちの父さん、お母さんのような人にならなくちゃ。』という標題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父親がするのを見て娘が『お父さんのような人を夫で会えば私は一生幸せだろう。うちのお父さんのような人に会えてうちのお父さんが幸せだね。』とまた、息子は『うちのお母さんのような人と会えば私は一生幸せな家庭を持つことができるんだね! うちのお母さんのような人に会えてうちのお父さんも幸せだね。』という確信を持てるように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人が大きくなったといって全部がみな正しい人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人が人間らしくあってこそ正しい人です。人間の最も重要な核心は良い花婿候補、良い花嫁候補者になって、その次は良い夫、良い妻になることです。良い夫、良い妻が愛して息子、娘を産むことになれば良いお父さんになり良いお母さんになります。それが人生の道です。

대통령도 낮에는 나라의 직무를 보지만 밤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한 여인 앞에 남편으로 돌아가고, 아들딸 앞에 아버지로 돌아가고, 손자 손녀 앞에 할아버지로 돌아갑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거기에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두워지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날이 새면 다시 일터에 가서 일하고 밤이 되면 또 가

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피로가 쌓이더라도 가정에 돌아가면 그 피로가 풀어져 다음날 또 일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심정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翻訳】

大統領も昼間には国の職務を見ますが、夜になれば家庭に戻ります。ある女性の前に夫に戻り、息子、娘の前にお父さんに戻り、孫、孫娘の前にはおじいさんに戻ります。それが家庭です。誰でも家庭で生まれて家庭で成長します。そこに幸福と喜びと希望があります。

人間は暗くなれば家庭に戻って、夜が明ければ再び仕事場に行き仕事をして、夜になればまた、家庭に戻ります。そのために仕事場で疲労がたまっても、家庭に戻ればその疲労が解消されて翌日また、仕事をしに行けるようになるのです。そうなるにはそこに心情がなければならず、愛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식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큼니다.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인격을 아이는 성장하면서 먹고 배우고 체휼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에는 심정과 사랑과 인격을 주어야 합니다. 아기가 오줌똥을 싸도 좋은 자리 나쁜 자리, 전자리 마른자리 다 가려서 키워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충성과 효성과 열성을 다해 아기에게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기들도 부모 앞에 충효의 도리를 다합니다. 먼저 보여주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자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충, 효, 열로 자식을 심었다면 충, 효, 열을 실천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똑같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셨구나.'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가 정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충, 효, 열을 돌리게 됩니다.

【翻訳】

子供はお母さんの乳を飲んで成長します。乳だけ飲むのではなくお母さんの愛を食べて大きくなるのです。お母さんの心情、お母さんの愛、お母さんの人格を子供は成長して食べて学び体恤してで感じるのです。お母さんが赤ん坊を育てる時には心情と愛と人格を与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赤ん坊がおしっこや大便をしても良い席、悪い席、前席、乾いた席などみな分けて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お母さんとお父さんが忠誠と孝行の思いと情熱を尽くして赤ん坊に注ぎ込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こそその赤ん坊も両親の前に忠孝の道理を尽くします。先に見せて行わない人には、描いた者は出てこないです。忠、孝、烈を子供に植えたとすれば忠、孝、烈を実践する子供が出てきます。全く一緒である実が出てくるのです。'父母が私のためにこのように生きられたのだな。'ということを知るようになる時、その子女の胸中に父母が定着するのです。その次に父母に忠、孝、烈、を回すようになります。

충은 마음의 중심이 부모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생겼고 부모가 희생하면서 나를 길러주었구나. 부모가 나를 위해 봉사하면서 모든 것을 바쳐 길러주었구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좋은 아들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방패가 되어 주었구나.'하고 깨달을 때 그 자녀에게는 부모가 마음의 중심이 됩니다.

친구나 스승이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충이라 하지 않고 충을 앞세워 충효라고 합니다.

【翻訳】

忠は心の中心が父母という意です。'私が父母からできたし父母が犠牲になって私を育てたんだな。父母が私のために奉仕して全てのものを捧げて育てたんだな。私を教えて良い息子、娘になるようにするために父母が困難を克服して盾になってくれたんだな。'と悟る時その子女には父母が心の中心となります。

友達や師匠が心の中心とな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の心の中心は父母です。それで心の中心をたてるのが忠です。そのために孝忠とは言わず、忠を前面に出して忠孝といいます。

마음의 중심이 부모인데, 부모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천주의 핵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계의 질

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그런 자리에 있지만 사실 그 부모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하나님 대신이므로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섬기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내 마음의 중심이라면 그 중심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 【翻訳】

心の中心が父母なので、父母を確かに知らなければ完全な人になることができません。宇宙の核が家庭なのでそうなのです。家庭で私が生まれました。家庭の秩序がまさに世界の秩序になります。そのために父母が中心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を生んでくれた父母がそのような位置にあるという事実のその父母は神様です。

結局、神様を中心に侍る人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自身を生んでくれた父母が神様の代身であるので、自身の父母を侍って仕えれば神様に侍って仕えるのと同じなのです。私を生んでくれた父母が私の心の中心ならばその中心の根本は神様です。

효는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까지 다해서 내 마음의 중심되는 부모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횡적으로 연결되면 열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투입해서 부모를 섬기려는 마음이 충과 효와 열인데, 그 충, 효, 열은 부모를 아는 데서부터 본성으로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모시는 심정적 인간이 됨으로써 비로소 충, 효, 열을 지니게 된다는 말입니다. 충, 효, 열을 지녀야 비로소 자녀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翻訳】

孝は私の心と志と性分と生命までつくして、私の心の中心になる父母のために生きようになるという心です。それが横的に連結されれば烈になります。

自分が持っている全体を投じて父母に仕えようとする心が忠と孝と烈なのに、その忠、孝、烈は父母を分かるところから、本性で芽生えるのです。私たち人間が神様の子女になり神様を知って侍る心情的人間になることではじめて忠、孝、烈を持つよう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忠、孝、烈を持ってこそはじめて子女として資格を備えたといえることができます。

자녀가 자격을 갖추게 되면 부모는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이름을 갖고 부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요, 안식의 자리요, 평화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입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식이 먼저 자식의 자격을 갖추어 그 부모를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 【翻訳】

子女が資格を備えることになれば父母はその子女を通じて父母の名前を持って父母の位置に入ります。したがって父母の位置は光栄の位置であり、安息の位置であり、平和の位置であり、喜びの位置であり、幸福の位置です。父母がその場に入るためには子女が先に子女の価格を備えてその父母に侍って仕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이 완성하지 않으면 부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부모의 이상을 지니셨지만, 인간이 본연의 가치를 완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이름만 부모일 뿐 부모의 자리에 들어가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타락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슬픔의 대상이 되었고, 고통과 눈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계에는 하나님이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서러워하시고, 탄식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타락론'에서 밝히게 됩니다.

## 【翻訳】

同じように神様も人間が完成しなければ父母の位置に入ることができません。神様は人間を創造する以前から父母の理想を持たれましたが、人間が本来の価値を完成した神様の子女にならなくては、神様は名前だけ父母であるだけ父母の位置に入って安息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人間先祖アダム、エバの墮落でそのような神様の位置にサタンが入ったので人間が神様の悲しみの対象になり、苦痛と涙の対象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で墮落した世界には神様が留まら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墮落した世界を眺める神様は寂しがられ、なげかれ、涙を流されて、苦しまれるほか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具体的な内容は'墮落論'で明らかにすることになります。

## 3)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려면 (神様の真なる子女になるためには)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성과 외형을 닮고 혈통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닮음과 동시에 혈통을 닮아야 합니다. 마음과 몸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는다는 뜻이고, 혈통을 닮는다는 말은 실제로 절대성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 전부를 닮아야만 합니다.

## 【翻訳】

神様の子女になるためには神様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内性と外形に似て血統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心と体に似ると同時に血統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心と体に似るという意味は神様の本性相と本形状に似るという意味で、血統に似るという意味は実体で絶対性に似るという意味です。真の人間は神様に似た人間です。したがって神様の本体全部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

## (1)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은 것이 인간의 마음과 몸이고,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의 두 속성을 실체화한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서 부부가 됩니다. 각자는 먼저 마음과 몸의 통일체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부부를 이루면 함께 통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본성상과 본형상이 통일체로 되어 있고 본양성과 본음성이 중화적 통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개개인이 마음과 몸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하고 그런 개인들이 만나 이루어진 부부도 통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통일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부부가 결혼해서 통일체가 되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세계에 가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 【翻訳】

## (1)神様の子女になる条件

神様の本性相と本形状に似たのが人間の心と体であり、神様の本陽性と本陰性の二つの属性を実体化したのが男性と女性です。その男性と女性が成長して夫婦になります。各自は先に心と体の統一体にならなければならず、彼らが夫婦を成し遂げれば共に統一体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神様の中にある本性相と本形状が統一体になっており、本陽性と本陰性が中和的統一体になっているので、人間も一人一人が心と体の統一体を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ず、そのような個人が出会って成り立った夫婦も統一体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神様の子供になることができる最初の条件です。なので心と体が統一されない一人の人間は神様の子女になれないのです。

また、夫婦が結婚して統一体にならなければ霊界に行って神様の前に子女として正しく立つことができません。本来神様が創造された本来の世界に行って住む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심정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참사랑이 심정에서 솟아나고, 심정에서 나온 참사랑을 중심해서 참

생명과 참혈통이 이루어집니다. 절대성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정을 중심해서 참 사랑, 참생명, 참혈통 그리고 절대성을 지니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 속성도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翻訳】

神様の本質的属性は心情です。したがって人間も本質的属性が心情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心情は真の愛の根です。真の愛から心情で出てきて、心情から出た真の愛を中心として真の生命と真の血統が成り立ちます。絶対性の本体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神様も心情を中心として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そして絶対性を持たれた父親です。それで私たち人間の本質的属性も心情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하나님의 창조는 심정을 동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정의 완성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정이 동기가 되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심정의 완성자로 성장해오신 것입니다.

#### 【翻訳】

神様の創造は心情を動機として成り立ちました。心情の完成には対象が必要です。それで創造が始まりました。心情が動機になって創造が成り立ったのです。心情は対象を愛して喜ぼうと思う抑制できない情の衝動心です。神様もそのような心情の完成者に成長してこられたのです。

하나님은 4 대심정권을 통해 성숙하여 스스로 창조의 본체가 되시고 이상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이 관계된 영역이 4 대심정권입니다. 하나님은 그 4 대심정권을 중심으로 성숙하신 창조의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인간도 생활의 동기가 심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딪치고 그것을 타개해 나갑니다. 그 자체가 자신을 창조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에서도 심정을 동기로 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기 창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활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인간으로 창조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리 생활의 동기를 하나님의 심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 【翻訳】

神様は4大心情圏を通じて成熟して自ら創造の本体になられて理想を完成して行くのです。子女の心情、兄弟の心情、夫婦の心情、父母の心情が関係した領域が4大心情圏です。神様はその4大心情圏を中心に成熟された創造の本体でいらっしゃいます。

したがって人間も生活の動機が心情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の人間は毎日毎日生活して新しい状況にぶつかり、それを打開していきます。それ自体が自身を創造する生活です。ここでも心情を動機とする生活が必要です。

自分の創造はある日突然成り立つのではありません。人間は生活を通じて毎日毎日神様が願う本来の人間に創造されるべきなので、そうしようとするなら私たちの生活の動機を神様の心情に探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창조는 스스로를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전개하는 기준은 창조원리라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투입하고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설계도인 원리는 하나님 자체 속에 있는 본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본체라고 하지 않고, 원리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세계의 본체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세계를 있게 한 근원적 요소가 심정인데, 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를 위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계도가 창조원리입니다.



## 【翻訳】

創造は自らを投入して展開するのです。投入して展開する基準は創造原理という設計図です。その設計図によって神様はあなたに投入して展開されるのです。創造の設計図である原理は一つ男性自体の中にある本体の構成要素です。それで存在の本体だとするのではなく、原理の本体といいます。それなので神様は存在世界の本体としてだけおられるではありません。

存在世界をあるようにした根源的要素が心情なので、心情があるからといって無条件に創造がなさ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創造のための設計図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設計図が創造原理です。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로 계십니다. 원리에 의해서 당신을 투입하고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야 합니다. 나의 인격은 누가 대신 완성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 인격을 창조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분담으로 자기 인격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책임분담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기의 인격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자신의 책임분담으로 완성하는 것이 인격 창조입니다. 인격 창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자기를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입니다.

## 【翻訳】

神様は原理の本体としておられます。原理によってあなたに投入して展開するということです。したがって人間も神様に似て自身の人格を創造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の人格は誰かが代わりに完成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神様も私の人格を創造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自身の責任分担によって自分の人格を創造していくのです。

人間は神様がくださった御言を信じて実践して神様の息子娘としての姿を備えていくべきなのです。'取って食べるな。'という御言です。取って食べるなという御言を守ることが人間の責任分担です。御言を守ることがまさに自らの人格を創造していくことなのです。自らの人格を自身の責任分担で完成することが人格創造です。人格創造は神様の御言を中心にして自分を投入して展開するのです。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상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가득 차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성이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타락성이 먼저 발동되고 유발됩니다.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과 참사랑, 인격이 가득 차고 넘쳐흘러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스스로 인격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투입한다는 말은 자기의 심정과 참사랑을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의 인격을 대신 만들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격 창조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인격 창조는 자기 투입이고 자기 전개입니다. 자기를 투입하여 내면을 표면으로 전개하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 자체가 위하여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면 위하여 사는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은 심정문화세계를 이룹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활, 위하여 사는 생활은 자기의 인격을 창조하는 생활인 동시에 심정문화세계를 완성하는 생활입니다.

## 【翻訳】

私の心の中には神様の性相的な要素が入ってきてぎっしり埋ま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墮落した人間は墮落性が胸中に満ちているので墮落性が先に発動されて誘発されます。そのような心をなくすためには人間の胸中に神様の本質的属性である心情と真の愛、人格がぎっしり埋まってあふ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心を持ってこそ自らの人格を創り出すことができます。

自分を投入するという言葉は自らの心情と真の愛を投入して展開するのです。それが人格の創造です。それは誰かが代行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神様も私の人格を代わりに作ら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のため

にいつも自身をよく観察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身が成長しているのかいないのかを確認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人格創造は誰かがするのではなく自分自身がするのです。

人格創造は自分の投入であり自分の展開です。自分を投入して内面を表面に展開するには私の心の中に神様の心がぎっしり埋まっ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すると生活自体がために生き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れが心情と真の愛と人格を備えるのです。本来の血統と連結されれば、ために生きる生活になり、その生活は心情文化世界を成し遂げます。犠牲にして奉仕する生活、ために生きる生活は自らの人格を創造する生活であると同時に心情文化世界を完成する生活です。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존재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유일, 불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면 상대적인 자리에 있는 그 자녀의 가치도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역사 속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절대적인 부부, 유일한 부부, 불변한 부부, 영원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바뀌는 법도는 없습니다. 부부는 유일한 부부요, 지상과 영계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살다가 저 사람과 사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맺어진 부부는 영원한 부부입니다. 따라서 절대, 유일, 불변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 【翻訳】

神様は絶対、唯一、不変、永遠な方です。神様に似た人間も絶対、唯一、不変、永遠な存在です。絶対という話は唯一で変わらないという意味です。それ自体が永遠なので絶対者になるのです。基準が唯一、不変、永遠なので絶対者という言葉を使うのです。

人間は絶対的な存在です。絶対的な神様が私の父親であるためです。神様が絶対的な方なら相対的な位置にあるその子女の価値も絶対的です。それで唯一で、不変で、永遠なのです。国はその存在は歴史の中にただひとりしかいません。そのために私も神様の前に変わりなく永遠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個人もそうですが夫婦も同じことです。夫婦も絶対的な夫婦、唯一の夫婦、不変の夫婦、永遠の夫婦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夫婦が変わる法度はありません。夫婦は唯一の夫婦であり、地上と霊界まで永遠なのです。この人と生きてあの人と生きるということは原理に合いません。そのために地上で結ばれた夫婦は永遠の夫婦です。したがって絶対、唯一、不変の夫婦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본체 되시는 아버지입니다. 절대성 위에 세워진 아버지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이어받아 절대성을 지닌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연의 아담이고 해와입니다. 완성한 아담과 해와는 자녀를 낳으면 참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형의 참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인 아담, 해와는 실체의 참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무형의 참부모는 마음과 같고, 실체의 참부모는 몸과 같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본체를 닮아 절대, 불변, 영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지닌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 【翻訳】

神様は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の本体であられるお父様でいらっしゃいます。絶対性の上にたてたお父様です。その話です。そのお父様に似るためには私たちの人間も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を受け継いで絶対性を持った実体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本来のアダムとエバです。完成したアダムとエバは子供を産めば真の父母になります。

神様が無形の真の父母なので神様の実体であるアダム、エバは実体の真の父母になるのです。無形の真の父母は心と同じで、実体の真の父母は体と同じです。そのような父母になるために、私たち人間は家

庭を作って子供を産むのです。本体に似て絶対、不変、永遠の家庭を作るためには真の愛、真の生命、真の血統を持った実体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당신 전체를 투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꼭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을 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하는 의심이나 '힘이 들어 못하겠다.'하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또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 앞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투입하여 당신을 전개한 창조물을 놓고 누구도 '내가 주인이다.'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할 때 인간에게 만물을 창조한 것 이상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로 인해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 【翻訳】

神様の創造は何もない空虚と混沌の中であなたの全体を投入しながら始まりました。そこには'必ず成り立つ。'という絶対的な信仰があっただけで、'これがまともに成り立とうか?'という疑いも'大変でできない。'という不平もなかったのです。また、それ自体を絶対的に愛してその前に絶対服従しました。創造は神様の絶対信仰、絶対愛、絶対服従で成り立ったのです。

神様がそんなにも全てのものを投入して、あなたを展開した創造物を置いて、誰も'私が主人だ。'と主張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神様だけが絶対的な主人です。そうするからといいつつも、人間は神様の体なので神様と共に主人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ただし人間が主人になるためにはその資格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神様がそうされたように絶対信仰、絶対愛、絶対服従でその誰もすることもできない自身の人格を自ら創造する時、人間には万物を創造したこと以上の価値が付与されます。それによって人間も神様と共に主人の位置に立つことができるのです。

이상의 일곱 가지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체인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 일입니다. 본체의 속성을 닮는 데는 본체와 실체의 각자 구분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영역이 있는 동시에 인간의 책임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분담입니다.

하나님의 책임분담은 만물을 재료로 하여 인간을 창조하고 그에게 본체를 닮을 수 있는 요소를 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분담은 그 요소를 가지고 본체를 닮도록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 【翻訳】

以上の7種類は最も中心となる神様の本質的属性です。神様の子女になるためには色々なものの条件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最も重要なのは本体である神様の属性に似ることです。本体の属性に似るには本体と実体の各自に区分される役割があります。神様の責任領域があると同時に人間の責任領域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が責任分担です。

神様の責任分担は万物を材料にして人間を創造し、彼に本体に似ることができる要素を皆あげることです。人間の責任分担はその要素を持って本体に似るように自身を成熟させることです。

인간은 원리본체의 모든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참사랑과 인격, 질서와 법도를 지키는 원리의 생활화, 그리고 절대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절대성 위에서 본성상과 본형상의 통일체가 되셨으니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분신체로서 절대성의 남성, 또는 절대성의 여성이 되어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상

을 닮고 몸은 하나님의 본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성 위에서 본성상과 본형상을 통해 심정과 사랑과 인격, 그리고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 절대성 위에 선 남성과 여성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을 닮고 몸으로는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절대적인 가치관입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절대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 【翻訳】

人間は原理本体のすべての属性に似て神様の子女になります。神様の子女は神様の心情に似た真の愛と人格、秩序と法度を守る原理の生活化、そして絶対性の上に立てられるのです。神様が先に絶対性の上で本性相と本形状の統一体になられたので、私たち人間も神様の分身体として絶対性の男性、または、絶対性の女性になり、心は神様の本性相に似て体は神様の本形状に似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神様の価値は絶対性の上で本性相と本形状を通じて心情と愛と人格、そして原理と法度と秩序を現わすのです。それなら人間も神様に似て絶対性の上に立った男性と女性が心では神様の心情と愛と人格に似、体では原理と法度と秩序的な生活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が神様に似た人間の絶対的な価値観です。その核心が神様の絶対性の上に立てられるのです。絶対性がなければ神様の本性相と本形状に似た生活が出来ません。

절대성은 '원리본체론'이 없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원리본체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리본체의 생식기라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원리본체라는 말은 보이지 않더라도 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성이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원리본체를 밝혔을 때에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절대성은 참사랑의 씨와 참생명의 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절대성 위에 세우는 인간의 책임분담이 중요합니다. '성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창세기 2장 17절)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책임분담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 【翻訳】

絶対性は'原理本体論'がなければ説明する方法がありません。今まで原理本体を明らかにできなかったためにそれが原理本体の生殖器だと説明できませんでした。原理本体という話は見えなくても体を有しているという意です。絶対性が生殖器ということはこのような原理本体を明らかにした時にだけ説明が可能です。

絶対性は真の愛の種と真の生命の体になる要素です。それで自身を絶対性の上に立てる人間の責任分担が重要です。'善悪を知るようになる木の実を食べてはならない。'(創世記 2 章 17 節)で語られた神様の御言を守ることが人間の責任分担です。その責任を全うすれば神様に似る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인간이 절대성을 통해 절대신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절대성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도 실체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실체를 갖추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신성의 본체로서 그 품격을 신격이라고 표현해야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실체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부모가 될 수 없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 【翻訳】

神様の立場で見れば、それは人間が絶対性を通じて絶対神格をそろえることなのです。絶対性の本体になれる神様も実体がなければ何の意味がありません。それで神様が愛を通じて実体を備えるのです。

本来、神様は神性の本体としてその品格を神格だと表現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人を通じて実体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人格だと表現します。神様は人がいなければ父母になることのできない人格体と

いうものです。

인간도 그 아버지를 닮아 절대성의 가치를 세우면 내면에 절대신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고, 인간은 신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마음이 되고 인간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분담입니다. 따라서 신인책임분담완성은 신인애일체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신인애일체이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인애일체이상의 완성 여부는 실체를 지닌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은 참사랑과 절대성의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翻訳】

人間もそのお父様に似て絶対性の価値を立てれば内面に絶対神格を備えることになります。そのように神様は人格を備え、人間は神格を備えれば神様は心になって人間は体になるのです。それがまさに神様と人間の責任分担です。したがって神人愛責任分担完成は神人愛一体理想を完成することです。神人愛一体理想は神様の愛と人間の愛が体を通じて実現されるのです。したがって神人愛一体理想の完成の有無は実体を持った人間にかかっています。

結論は神様は人間の父母で、人間は神様の子女なので真の人間になろうとすれば神様に似た真の愛と絶対性の人格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 4) 참된 교육 (真なる教育)

참된 교육이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도록 하는 교육에는 인간교육과 지식교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간교육은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중심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식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 【翻訳】

真の教育というのは神様の真の子女になるべく教えることです。神様の真の子供になるようにする教育には人間教育と知識教育があります。その中で人間教育は心情教育と規範教育を中心に家庭から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知識教育は知識と技術を中心に学校ですることです。

##### (1)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도록

창조목적에 합당한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상을 창조이상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조이상은 바로 창세기 1 장 28 절의 3 대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3 대축복입니다. 생육과 주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바로 인간의 교육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 장 21 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은 창조목적이고 3 대축복이고 사위기대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인데, 그 창조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생육해야 하고, 번성해야 하고, 주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이상입니다.

#### 【翻訳】

##### (1)神様の真の子女になるように

創造目的にふさわしい真の教育をするためには教育理想を創造理想で探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創造理想はまさに創世記 1 章 28 節の 3 大祝福です。'神様が彼らに福をくださり、彼らに達せられるものを生育して繁盛して地に充滿しなさい、地を征服しなさい、海の魚と空中の鳥と地に動くすべての生物を治めるの

だ。'これが人間に与えられた神様の3大祝福です。生育と主管を成し遂げることが神様の理想です。その理想がまさに人間の教育理想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聖書マタイ福音7章21節に'私に主よ主よという者だけがみな天国に入ることでないありません、ただし天にいらっしゃるお父様の思い通りに行う者でこそ入るだろう。'と言われました。具体的にはお父様の意とは創造目的であり3大祝福であり四位基台です。

それが家庭理想です。天におられたお父様の意が神様の創造理想なので、その創造理想が家庭で成り立つという意味です。それで家庭では生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繁盛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主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それが教育理想です。

위와 같은 교육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성과 번식성과 주관성을 닮는 것을 교육이념으로 해야 합니다.

人間は 하나님의 아들딸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딸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개성완성을 의미합니다.

#### 【翻訳】

上のような教育理想を実現するためには神様の完全性と繁殖性と主観性に似ることの教育理念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人間は神様の息子娘として生まれたので神様の息子娘に成長するようにするためには教育が優先です。先に神様が完全なように私たちの人間も神様の完全な姿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完全性に似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れはすなわち個性完成を意味します。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번식성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을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선한 인간을 번식하는 것으로 가정완성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이 당신의 전체를 투입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심정으로 주관하고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하나님의 주관성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관완성을 의미합니다.

#### 【翻訳】

そして神様の創造性に似て子供を産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様の繁殖性に似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それは悪なる人を繁殖するのではなく神様に似た善なる人間を繁殖することであり、家庭完成を意味します。

また、神様があなたの全体を投入して被造物を創造し、それを心情で主管して愛で治めておられます。私たち人間もそのような神様の主管性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は主管完成を意味します。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기 위해서 개성을 완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번식성을 닮기 위해서 가정을 완성해야 합니다. 개성을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아들딸을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성을 닮기 위해서 주관성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이념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는 심정교육과 번식성에 따른 규범교육, 그리고 주관성을 위한 지식교육 등 구체적인 교육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翻訳】

したがって人間は神様の完全性に似るために個性を完成しなければならず、神様の繁殖性に似るために家庭を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個性を完成した男性と女性が夫婦となって家庭を作り、息子娘を産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神様の主管性に似るために主管性を完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が教育理念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教育理念を実践するためには神様の完全性に似る心情教育と繁殖性にともなう規範教育、そして主管性のための知識教育など具体的な教育方法が提示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심정교육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에서 나온 사랑이 참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참사랑을 실천하고 생활화할 때 인격이 형성됩니다.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참사랑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 인격의 핵심입니다. 심정교육은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는 것이고, 각자가 저마다의 개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 【翻訳】

心情教育は神様の完全性に似ることです。神様の本質的属性である心情から出た愛が真の愛というものです。真の愛を実践して生活化する時、人格が形成されます。

心情は神様の本質的属性であり、真の愛の根になり、神様の人格の核です。心情教育は皆が神様の完全性に似ることで、各自が各々の個性を完成することです。

인간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상과 본형상을 닮은 마음과 몸이 인간의 개체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과 심정을 닮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닮아야 합니다.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즉 4대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하고,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절대성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심정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 참사랑과 인격이 차고 넘쳐서 흘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은 신인일체를 이루는 것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것이 심정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 심정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 【翻訳】

人間の心とからだは神様の本性相と本形状からきました。したがって本性相と本形状に似た心と体が人間の個体の中にあります。このように神様に似た私たち人間は内的には神様の神性と心情に似、外的には神様の絶対性に似なければなりません。

子女の心情、兄弟の心情、夫婦の心情、父母の心情、すなわち4大心情が私たちの胸中に一杯になって溢れなければならないくて、神様が探することができる絶対性の実体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胸中に心情が中心となって、そこで真の愛と人格が一杯になって溢れて流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うなれば神様と人間は神人一体を成し遂げることになります。人間は神様の偉大な聖殿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神様が完全なように人間も完全な人間になります。それが心情教育の目標です。そのような心情教育は父母から始まるのです。

#### (2)원리를 생활화하도록

규범교육은 질서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식단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먼저 아버지 밥부터 떠서 상 위에 차려놓은 다음에 식구들의 밥을 차려야 합니다. 수저를 놓는 데도 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문화생활입니다. 그것이 규범이요, 질서요, 심정문화입니다. 신발을 벗을 때도 가지런하게 놓아야 합니다. 아버지 신발이 오른쪽, 어머니 신발은 왼쪽, 여자 신발은 왼쪽, 형님 신발은 오른쪽, 동생 신발은 왼쪽에 놓습니다. 신발 하나 놓는 데에도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길거리를 갈 때도 형님이 오른쪽에 서고 동생은 왼쪽에 서서 걸어야 합니다.

#### 【翻訳】

#### (2)原理を生活化するように

規範教育は秩序に対する教育です。それは家庭で始まります。献立にも秩序があります。食事時間になればお母さんは食べ物を心を込めて準備してまずお父さんご飯からすくってお膳の上にそろえた次に家族のご飯を整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箸とスプーンを置くのにも格式があります。そんなことを幼い時から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文化生活です。それが規範であり、秩序であり、心情文化です。

靴を脱ぐ時もそろっているように置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お父さんの靴が右側で、お母さんの靴は左

側、女性の靴は左側、お兄さん靴は右側、弟の靴は左側に置きます。靴下を置くのにも秩序を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路上に行く時もお兄さんが右側に立ち弟は左側に立って歩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양말을 빨아 널 때에도 형님 것과 동생 것을 구분해야 하며 남자들 것과 여자들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옷을 걸 때에도 구별해서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도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질서와 규범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가정의 규범 교육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이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기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 나무를 죽이게 됩니다. 잘못 길러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기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하는 데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아무리 기술과 지식이 있더라도 체력이 약해서 질병에 걸리면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도 향상해야 합니다.

#### 【翻訳】

靴下を洗って干す時にもお兄さんものと弟のものを区分するべきであり、男性たちのものと女性たちのものを区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服をかける時にも区別してか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こにも秩序があり規範があります。秩序と規範は幼い時から習慣的に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に生活することが家庭の規範教育です。

私たちが何を主管するためにはその事物に対する知識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知識がなければ主管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例えば庭園に木ひと株を植えても育てる方法を知らない人はその木を殺すことになります。間違って育てて殺すことよりも、むしろ育てる方法を知っている人に持って行くほうが良いです。

そのために主管するには知識がなければならなくて技術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また、いくら技術と知識があっても体力が弱くて病気にかかれば主管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そのために体力も向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간이 하나님의 3 대 축복 가운데 첫째 축복인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기 위해서는 심정교육을 통한 개성완성을 이루어야 하고, 둘째 축복인 하나님의 번식성을 닮기 위해서는 규범교육을 통한 질서를 세워 가정완성을 해야 하고, 셋째 축복인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과 체력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표는 심정교육을 통해 인격자를 만들고, 규범교육을 통해 선한 사람을 만들고, 지식교육을 통해 천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천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재성을 갖춘 사람을 지칭합니다.

#### 【翻訳】

人間が神様の3大祝福の中で最初の祝福である神様の完全性に似るためには心情教育を通じた個性完成を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ず、二番目の祝福である神様の繁殖性に似るためには規範教育を通じた秩序を立てて家庭完成をしなければならず、三番目の祝福である万物を主管するためには知識と技術と体力を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したがって教育の目標は心情教育を通じて人格者を作り、規範教育を通じて善良な人を作り、知識教育を通じて天才を養成することです。天才という言葉は神様から与えられた天才性を備えた人を示します。

#### (3) 문화통일을 이루도록

참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아들딸로 성장시키는데 하나님과 참부모와 영계와 삼대 축복 완성에 대해 확실해서 원리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통일을 통한 3 대요소인 심정통일, 사상통일, 생활통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근본입니다.

#### 【翻訳】

(3)文化統一を成し遂げるように



眞の教育を通じて神様に似た息子、娘に成長させるのには神様と眞の父母と靈界と三大祝福の完成に対して確実で原理的な生活をす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文化統一を通した3大要素である心情統一、思想統一、生活統一を成し遂げるようにすることが統一教育の根本です。

#### (4) 애천,애인,애국하도록

참된 교육이념은 애천,애인,애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참된 교육 이념입니다. 어디에서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고, 교육의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참된 가치관 한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애천, 애인, 애국 속에 원리본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翻訳】

#### (4)愛天、愛人、愛国をするように

眞の教育理念は愛天、愛人、愛国です。神様を愛し、人を愛し、国を愛する心を育てることが眞の教育理念です。どこで行っても神様を愛し、人を愛し、国を愛する人に育てるのです。

私たちは皆、考えが違って、教育の目標が違って、価値観が違って、判断する基準が違います。ところが眞の価値観一つを持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愛天、愛人、愛国の中に原理本体がすべて入っています。それを持って生活して実践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5) 이성성상이 현실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 (二性性相が現実世界の問題解決の鍵)

이성성상이 현실세계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통일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실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일 큰 난관은 신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관을 해결하면 현실세계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 【翻訳】

二性性相が現実世界の問題解決の鍵です。統一原理を勉強する理由は現実世界のすべて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ものといいました。現実世界問題を解決するのに一番大きい難関は神観に対する問題です。したがって神観を解決すれば現実世界のすべての問題はすぐに解決されます。

#### (1) 성상,형상은 만능의 열쇠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데,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대로 전개해 놓은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실성을 밝히고 보니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이성성상이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인 성상과 형상은 만능의 열쇠입니다.

성상과 형상은 마음과 몸을 중심으로 하고, 양성과 음성은 절대성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형상과 절대성의 역할로 존재세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翻訳】

#### (1)性状、形状は万能の鍵

神様は本性相と本形状の二性性相の中和的統一体としておられましたが、その神様に似てそのまま展開しておいたのが人間です。神様の実相を明らかにして見ると神様の本体であられる二性性相が現実世界の問題を解決する鍵になります。神様の二性性相である性状と形状は万能の鍵です。

性状と形状は心と体を中心にして、陽性と陰性は絶対性を中心にしたものです。そのために性状、形状と絶対性の役割で存在世界の現実問題を解決できます。

호텔에 가면 방마다 키가 있습니다. 한 방에 속해 있는 키는 다른 방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키는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세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인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내면을 알고 외부로 전개된 실상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에 내재한 속성, 곧 이성성상이 현실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의 열쇠인 것입니다. 보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형상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본으로 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본성상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정에 의해 인간에게 본성상을 닮은 마음을 주었고, 본형상을 닮은 몸을 주었습니다. 또 그런 인간을 본으로 해서 삼라만상을 창조했습니다.

#### 【翻訳】

ホテルに行けば部屋ごとにキーがあります。ある部屋に属しているキーは他のドアを開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ところでマスターキーはすべての部屋のドアをみな開くことができます。これと同じように現実世界のすべての問題は神様を否定してしまい、神様を離れた人々によってできたために、神様の中に戻って神様の内面を知り、外部に展開した実状を分かればすべての問題がみな解決されます。それで神様の本体に内在した属性、すなわち二性性相が現実世界の問題を解決する万能の鍵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本性相は神様の心であり、本形状は神様の体と同じ部分です。神様は御自身を本にして人間を創造しました。本性相の本質的属性が心情といいました。神様は心情によって人間に本性相に似た心を与え、本形状に似た体を与えました。また、そのような人間を本にして森羅万象を創造しました。

하나님은 먼저 만물을 창조했지만, 창조 이전부터 구상은 인간을 선유했다는 것입니다. 안긴이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 전체의 요소가 총합된 천주의 축소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아담을 먼저 놓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해와를 지었습니다(창세기 2 장 21-22 절),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여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여자를 선유했고 그 여자에 맞게끔 남자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 【翻訳】

神様は先に万物を創造しましたが、創造以前から構想は人間を先惟したということです。抱かれたこのすべての被租世界を主管して生きていくのを先に考えたという話です。それで人間は被造物全体の要素が総合された宇宙の縮小体です。

聖書を見れば、神様は人間を創造する時、アダムを先に置いてアダムの肋骨をとってエバを作りました(創世記 2 章 21-22 節),しかし神様の創造は女性から始めました。女性を先惟して、その女に性合うように男性を作ったという話です。

남자를 지어 놓고 거기에 맞게끔 여자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선유했고 남자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성격 주체로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요한 것은 여자인 어머니입니다. 절대성 씨를 가진 아버지는 그 씨를 심을 밭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해와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하나님 부인의 입장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확실히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타락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머지 문제도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 【翻訳】

男性を作っておいてそこに合うように女性を作ったのではないのです。女性を先惟して男性を作りました。神様が男性格主体としておられた父なので、父に必要なのは女性である母です。絶対性の種を持つ父はその種を植える畑が必要でした。それがエバです。

それでエバは神様の夫人の立場にあったという話です。そこからすべての問題を確実に解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こそ墮落の問題も解決されて、残りの問題もみな解決されるのです。

하나님이 인간을 본으로 삼라만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모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성상과 형상의 균형을 갖추어 그 존재목적과 가치를 달성해야 합니다. 성상과 형상의 균형을 갖추어야만 존재목적과 가치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형상적인 부분이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도 성상적 부분이 가정윤리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살면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가정윤리가 필요합니다.

【翻訳】

神様が人間を本にして森羅万象を創造したので人間が集まって住む所には必ず性相と形状の均衡を備え、その存在目的と価値を達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性相と形状の均衡を備えてこそ存在目的と価値が達成されるのです。

人が生きる社会の基本単位は家庭です。家庭の形状的な部分が父母と子女です。父母と子女が生きていく家庭においてもその性相的部分が家庭倫理なのです。それで父母と子女が生きながら家庭を導いて行くことができる根本的な家庭倫理が必要なのです。

그 가정윤리는 규범과 질서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질서가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질서가 있고, 형제는 형제로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똑같은 부모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거기에는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중심 핵은 성상인데, 성상은 심정을 동기로 하여 전개됩니다. 그래서 심정이 동기가 된 가정의 윤리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법으로 산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훈으로 산다.'고 써놓고 외치더라도 그 근본은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翻訳】

その家庭倫理は規範と秩序です。父母は父母として秩序があり、子女は子供として秩序があり、兄弟は兄弟として秩序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お父さんとお母さんは同じ父母ですがお父さんはお父さんとして、お母さんはお母さんとして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秩序があり規範があります。父母と子女も同じことです。いくら近くてもそこには規範があって秩序があります。

家庭でも中心核は性相なのに、性相は心情を動機にして展開します。それで心情が動機になった家庭の倫理観を立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たちの家庭はこのような法で生きる、私たちの家庭はこのような家訓で生きる。'と書いておいて叫んでも、その根本は心情が動機になら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話です。

심정은 참사랑을 유발합니다. 참사랑은 위하고 또 위하고, 주고도 또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생활 속에서 참사랑을 실천했을 때 비로소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상이 바로 가정윤리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라서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는 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길러내야 합니다.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에는 선생과 제자가 있습니다. 선생이 없는 제자, 제자 없는 선생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는 형상적 요소입니다.

【翻訳】

心情は真の愛を誘発します。真の愛はためにしてまたためにし、与えてもまた与えたくなくなる抑えることのできない愛です。生活の中で真の愛を実践した時はじめて人格が形成されるのです。それで性相がまさに家庭倫理の根本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家庭で育って学校で行けば学校ではさらに成熟した人間になるべく育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学校は知識だけ教える所ではありません。学校には先生と弟子があります。先生がない弟子、弟子ない先生はいません。学校で先生と弟子は形状的要素です。

학교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같은 성상적인 부분이 교육이념입니다. 교육이념은 누구나 똑같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교육이념이 다르고,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자기를 나름대로 교육이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로 돌아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땅 위에 태어난 인간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든지 모두 하나님의 아들딸로 태어났습니다. 성장하고 완숙하는 환경은 다름지언정 인간이 가져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교육이념을 세워야 합니다.

【翻訳】

学校では人間の心と同じ性相的部分が教育理念です。教育理念は誰でも全く同じ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せん。大韓民国は大韓民国のとおり教育理念が違って、アメリカは先進国であるから自分を自ら教育理念が違ふ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神様の息子娘に帰っていく道は全く同じです。

地の上に生まれた人間はどこの人でも全部神様の息子娘として生まれました。成長して完熟する環境は違っても人間が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目的は神様の息子娘になることです。そのために神様の子供になることができる教育理念をたて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교육이념의 이상이 하나님이 주신 3대축복입니다. 3대축복이라는 이상을 가진 인간이 될 때 비로소 가정이상과 학교이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심정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심정을 중심으로 지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아들딸에게 심부름시키고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심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 【翻訳】

教育理念の理想が神様がくれた3大祝福です。3大祝福という理想を持つ人間になる時はじめて家庭理想と学校理想が同じになるのです。その根本の根というのは同じです。どこでも心情が動機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れで先生が学生を指導する時に知識を伝達することで終わってははいけません。心情を中心として知識を教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父母が家で息子娘にお手伝いをさせるのに上手にできないと文句もいうし鞭が入ったりもします。その中には愛があって心情が入れられ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学校も同じことです。

그 다음에 그들이 졸업하고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기업체에 입사합니다. 기업체에는 노사가 있습니다. 사장이 있고 사원도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체의 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 기업체에도 성상적인 부분인 기업윤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윤리는 가정윤리에 기인합니다. 가정을 확대한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기본으로 질서와 규범을 세우는 가정윤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남남이 만나서 일하지만 그 일터가 자기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지만 자기 가정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 【翻訳】

その次に彼らが卒業して社会で活動するために企業体に入社します。企業体には労使があります。社長がいて社員もいます。それが企業体の形状的な部分です。その企業体にも性相的な部分である企業倫理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企業倫理は家庭倫理に起因します。家庭を拡大したのが企業なのでそうなのです。

家庭では父母と子供の関係を基本として秩序と規範をたてる家庭倫理があるといいました。職場でも同じことです。たとえ他人同士が会って仕事をするとしてもその仕事場が自分の家庭と同じ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職場で仕事をしますが自分の家庭の仕事をしていると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가정에서 일이 생기면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이 생기면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까지 가족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와서 아들딸들에게 "내가 일했으니까 일당을 달라."고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또 아들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내가 일했으니까 아버지 제게 일당을 주십시오."하는 아들딸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자로서 상속해 주어야 하고 아들딸은 상속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중심은 부모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전체를 희생합니다.

#### 【翻訳】

家庭で仕事が生じればその仕事はお父さんの仕事とだけとは考えません。仕事が生じれば早朝から夜

遅くまで家族全員が自分ができることはつくそうとします。熱心に仕事をしてきて息子娘に"私が仕事をしてきたので日当をくれ。"というお父さんはいません。

また、息子娘も同じことです。一日中仕事をしてきて"私が仕事をしたからお父さん、私に日当をください。"という息子娘もいません。お父さんは相続者として相続しなければならなくて、息子娘は相続は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そうなのです。そのような心を持って生きるということがまさに家庭です。その中心は父母です。自分の子供などのために全体を犠牲にします。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장은 직원들을 아들딸같이 보살피고 보호해야 합니다. 사원이 몸이 아파 출근을 못했다면 "직장 그만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장은 몸이 아픈 사원의 집에 가봐야 합니다. 가서 보고,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하고 누워 있으면 사장은 그 사원을 자기 차에 태우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약도 사줘야 합니다.

사장은 사원을 돈 주고 부리는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과 같이 생각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은 회사의 일을 자기 가정의 일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출근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 시간보다도 더 빨리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퇴근시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그 일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식입니다.

#### 【翻訳】

企業体も同じことです。会社の社長は社員を息子娘のように見守って保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社員が体が悪くて出勤できなかったとすれば"職場を止めて!"というのでなく社長が体の悪い社員の家に行ってみなければなりません。行ってみて、体が悪くて金もなくて病院に行けないで横になっていれば、社長はその社員を自分の車に乗せて病院に行き診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て、薬も買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社長は社員をお金与えて働かせる人として見てはいけません。父親として自分の子供のように考える会社の社長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になると社員は会社の仕事を自分の家庭の仕事のように考えることになります。出勤を遅れるようにするのではなく定めた時間よりもさらに早くきて仕事をしたがるといふことであり、退勤時間を待つだけではなく時間が少し遅れてもその仕事を終わらせて帰ろうとすることでしょう。それが主人意識です。

기업윤리는 가정윤리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다면 직원들이 데모를 하며 사장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사장이 되고, 직원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자녀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한 달 동안 월급을 못 줬다면 피켓을 들고 쉴대를 들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리자.', '밤을 새우며 연구하고 더 합심해서 이 회사를 살리 길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자.',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때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끌어다가 기업을 살리는 데 쓴다면 그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 【翻訳】

企業倫理は家庭倫理に起因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会社があるならば社員がデモをしながら社長を追い出そうとしません。絶対的にお父さん、お母さんのような社長になって、社員は父母の愛の中に住んでいる子女と同じ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会社が難しくて1ヶ月の間月給を与えられなかったとすればプラカードを持って鉄の塊を持って抗議するのでなく'私たちがさらに熱心に働いて会社を生かそう。','夜を明かして研究してさらに一致協力してこの会社が生きる道が何か研究してみよう。','このように出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会社があるならばその会社は絶対に滅びません。会社が難しい時すべての社員が一致協力してより一層熱心に仕事をして自分たちが持っているお金を引っ張って行って企業を生かすのに使うならばその会社は絶対滅びないでしょう。

국가를 보면 형상적 부분으로 지도자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한편 성상적 부분이 국가의 지

도이념입니다. 국가의 지도이념이 변하면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국가와 국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임기가 끝나면 한 번씩 바뀝니다. 선거제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과거의 국가 지도이념은 전부 쓸어버리고 새로운 국가이념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대통령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전부 인사 조치해 버립니다. 몇 년 동안 다시 노력해서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알 만하면 또 선거를 해서 바꿔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국가는 어려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만 고초를 겪습니다. 국가가 존속하고 그 국민이 존속하는 한 국가이념은 변하면 안 됩니다.

#### 【翻訳】

国家を見れば形状的部分として指導者がいて国民がいます。一方性相的部分が国家の指導理念です。国家の指導理念が変わってはいけません。通常的に国家と国民は変わりません。ところで指導者は任期が終われば一回ずつ変わります。選挙制度がそのように作ったのです。大統領が変われば過去为国家指導理念は全部はき捨てて新しい国家理念をたてる場合が多いのです。

重要な部署の責任を負っている人も大統領のコードに合わなければ全部人事措置をしてしまいます。数年の間、再び努力してその分野をある程度分かる頃にはまた選挙をして変えてしまいます。そうなるならばその国家は困難が繰り返されるほかはありません。国民だけが苦難に会います。国家が存続してその国民が存続する限り国家理念は変わってはいけません。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그 바통을 이어갈 국가의 지도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이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고 싶어 하시는 국민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국가가 되려면 거기에 함당한 국가적 지도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도이념이 세워졌다면, 정권이 바뀐다 해도 그 바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일국 이상입니다. 천일국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심정교육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훈련하고 참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는 국가마다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 국경선을 철폐해야 합니다.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딸에게는 국경선이 없습니다. 국경선과 같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경계선은 타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고 있는 국가도 국경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翻訳】

指導者が変わっても引き続きそのバトンを継続する国家の指導理念があるならば、それは神様が立てられた指導理念の外なりません。神様が訪ねて行きたがる国民になって、神様が祝福したがる国家になるにはそこにふさわしい国家的指導理念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ような指導理念が立てられたとすれば、政権が変わるとしてもそのバトンをそのまま継続するのです。それが天一国理想です。天一国理想を実現するために心情教育を心の中に大事に保管して訓練して真の愛があふれる生活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の次に世界には国家ごとに国境線があります。その国境線を撤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家庭のお父さん、お母さん、息子娘には国境線がありません。国境線と同じ境界線がありません。境界線は墮落によって始まったのです。それなので人類が生きている国家も国境線があってははいけません。

동물에게는 국경선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국경선이 없습니다. 만물에는 국경선이 없습니다. 식물도 이쪽에 뿌리를 두었지만, 그 가지가 뻗어나가면 국경선을 넘어 저쪽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물은 전부 국경선이 없는데, 만물의 영장이며 주인인 인간은 왜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냐는 말입니다.

총칼을 들고 경계를 하고, 국경선을 넘어오면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 평화, 평등,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경선을 다 터놓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어디든지 가서 태어날 수 있는 세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계입니다.

#### 【翻訳】

動物には国境線がありません。魚も国境線がありません。万物には国境線がありません。植物もこちらに根元を置いたが、その枝が伸びていけば国境線を越えてあちらで実を結ぶことができます。すべての存在物は全部国境線がありませんが、万物の霊長であり主人である人間はなぜ国境線を有しているかという話です。

銃刀を持って警戒をして、国境線を越えてくれば殺して監獄に閉じ込めるのは誤ったことです。そのような環境の中では真の自由、平和、平等、幸福を保障できません。国境線をみな取り除いてどこでも暮らせて、死ぬことができる権限があつて、どこにでも行って生まれることができる世界が本来神様が希望された世界です。

인류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계를 이루려면 성상적 부분인 세계 통일과 평화의 이념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가 하나 되고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는 이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국가가 있더라도 그 지도자들이 각자 다른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같은 이념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나라마다 지향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이념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목적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쳐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원치 않으십니다.

#### 【翻訳】

人類が永遠に幸せに暮らしていく世界を成し遂げるには性相的部分である世界統一と平和の理念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世界が一つになり平和な世界になることができる理念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地球上には数多くの国家があつたとしてもその指導者たちが各自異なったの指導理念を有してはいけません。皆が同じ理念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ところで今日、世界は国ごとに指向する価値観が違ふので指導理念が同じであるはずがありません。価値観が違ふと目的観も違います。それで境界線を引いて住んでいるというのです。神様はそのような世界を願いません。

한 분의 하나님 아래 모든 인류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형제자매가 살 수 있는 기본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의 한 가족!(One family under God!)'입니다. 이성성상이 현실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말은 성상, 형상이 만능의 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상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가치관을 통일하는 것이 절대선입니다.

#### 【翻訳】

一人の方である神様の下においてすべての人類は一つの兄弟姉妹です。神様を中心として兄弟姉妹が暮らせる基本単位がまさに家庭です。それが'神様の下にある一つの家族!(One family under God!)'です。

二性性相が現実世界のすべての問題を解決する鍵という話は性相、形状が万能のキーになるという意味です。それで必ず性相的価値観が確立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価値観の統一が成り立つべきなので、その価値観を統一することが絶対善です。

절대선은 심정적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위하는 생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상과 형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정입니다. 심정에 뿌리를 연결해 생활하는 것이 참사랑을 중심으로 한 위하는 생활입니다. 거기에서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제 사탄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청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로 돌아갈 수 있는 인격을 닦아 하나님을 닦아가는 생활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심정을 바탕으로 사는 것입니다. 원리본체의 핵심은 전부 심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뼈대입니다.

## 【翻訳】

絶対善は心情的生活を通じて成り立っており、為に生きる生活を通じて成り立ちます。性相と形状はすべての問題を解決できる万能のキーです。その中でも最も重要なのは心情です。心情に根元を連結して生活することが真の愛を中心にした為に生きる生活です。そこで人格が形成されます。

もうサタンの根性を持って生きていく今までの姿を一つ一つ清算して、父なる神様の息子娘に戻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人格を磨いて神様に似ていく生活を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が心情を基にして生きることなのです。原理本体の核心は全部心情に連結されています。それが骨組みです。

진리도 심정 안에 있습니다.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리가 있습니다.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심정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교육을 하더라도 말씀의 핵은 심정을 동기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만으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 【翻訳】

真理も心情の中にあります。心情を伝達するために真理があります。心情を伝達するために御言があるのです。心情を実体化するために私たちの生活が必要です。

教育も同じことです。どこの誰に教育を施しても御言の核は心情を動機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でこそ人の心を動かします。そのような教育を受けた人が新しい人へと変化するのです。知識伝達だけでは変化しません。

## (2) 양성, 음성을 통한 현실문제 해결

성상과 형상뿐만 아니라 양성과 음성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선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본체로 계십니다. 인간도 성상과 형상을 닮아 하나님처럼 살면 개성을 완성한 사람, 인격의 완성자가 됩니다. 그것이 곧 동양의 고전인 '대학'의 팔조목에서 말하는 개인의 몸을 바르게 하는 수신입니다.

## 【翻訳】

## (2) 陽性、陰性を通した現実問題の解決

性相と形状だけでなく陽性と陰性も現実の問題を解決する鍵です。

先次的に見る時、神様と人間の関係は父母と子女の関係です。神様は性相と形状の本体としておられます。人間も性相と形状に似て神様のように生きれば個性を完成した人、人格の完成者になります。それがつまり東洋の古典である'大学'の八条目で語られる個人の体を正しくする修身です。

후차적인 것은 양성과 음성입니다. 양성과 음성은 부부가 되어 결합하는 것으로, 그것이 가정 완성입니다. 가정 완성이 곧 '대학'에서 말하는 집안을 잘 다스려 바로잡는 제가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서로의 관계가 흩어지고 깨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닮게 지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니 통일성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해결하지 않는 한 현실세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상과 형상과 함께 그 속성인 양성과 음성도 현실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 【翻訳】

後次的なものは陽性と陰性です。陽性と陰性は夫婦になって結合することであり、それが家庭完成です。家庭完成がまさしく'大学'で言われる家をよく治めて正す齊家です。

人間は墮落でお互いの関係が散って壊れました。神様の中で神様に似るように作ったのですが、神様を否定したため統一性がなくなりました。

再び神様の中に戻って解決しない限り現実世界の問題は解決されません。それで性相と形状と共にその属性である陽性と陰性も現実問題の解決における重要な鍵になるのです。



### (3) 인간의 마지막 혁명

지금까지 인간 세계는 수많은 혁명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세계 3대 시민혁명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입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구제도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낡은 신분제도, 낡은 권력에 대한 프랑스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목적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해보자는 것이며, 평화세계와 행복한 세계를 구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가며 혁명을 했습니다.

#### 【翻訳】

#### (3)人間の最後の革命

今まで人間世界は数多くの革命を通じて発展してきました。世界3大市民革命は英国の名誉革命、アメリカの独立革命とフランスの市民革命です。フランスの市民革命は'旧制度の矛盾'から抜け出すために古い身分制度、古い権力に対するフランス民衆の抵抗でした。革命を起こした目的は現実問題を解決して、平和統一をし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あり、平和世界と幸せな世界を実現し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した。数多くの人が血を流しながら革命をしました。

중국에서는 산업, 정치, 종교, 문화혁명도 했습니다. 역사상 수없이 혁명을 해왔는데,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 다. 평화통일세계, 행복한 세계가 실현되지 않았습니 다. 환경의 변혁은 가져왔지만 환경의 주인인 인간 자체가 혁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면 마지막에는 인간혁명을 해야 합니다. 인간혁명을 하지 않는 한 이 세계는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가 되지 못합니다. 과거의 혁명은 총칼을 가지고 권력으로 했습니다. 총칼로 혁명을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인간혁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 【翻訳】

中国では産業、政治、宗教、文化革命もしました。歴史上数えきれない程、革命をしてきましたが、現実の問題がみな解決されなかったです。平和統一世界、幸せな世界が実現されなかったです。環境の変革は持ってきましたが、環境の主人である人間自体が革命されなかったためです。

私たちが正しく生きようとするなら最後には人間革命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人間革命をしない限りこの世界は神様が望む世界になりません。過去の革命は銃刀を持って権力でしました。銃刀で革命をして見たら数多くの人が血を流しました。人間革命はそのようにしてはいけません。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원리본체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리해설', '원리강론'을 총합해 놓은 말씀이 '원리본체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도 '원리본체론'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냥 원리 교육이 아니고 원리본체와 절대성을 존중하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원리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체에 대한 견해를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면 현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 【翻訳】

真の人間は神様に似た人間です。神様をすぐに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原理本体という話が必要なのです。'原理解説'、'原理講論'を総証しておいた御言が'原理本体論'なので、もう私たちが教育する時も'原理本体論'教育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まま原理教育ではなくて原理本体と絶対性を尊重する教育から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原理も神様の本体の中にあるのです。本体に対する見解を確かに整理できなければ現実問題は解決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인간혁명은 심정을 원천으로 한 참사랑과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혁명이고, 심정혁명은 참사랑의 혁명이자 참인격의 혁명입니다. 그것이 절대성 혁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심정혁명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참사랑의 혁명은 꽃이나 향기와 같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참인격의 혁명입니다. 그 열매는 참가정에서 맺힙니다. 그것이 절대성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원리본체인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성의 혁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성의 가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은 이 같은 절대성의 혁명입니다. 원리본체와 더불어 절대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아담,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잘못되어 천지가 개벽했으니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절대성의 가치관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翻訳】

人間革命は心情を源泉にした真の愛と教育を通じるだけで成り立つことができます。人間革命において、心情革命は真の愛の革命であり真の人格の革命です。それが絶対性革命につなが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それで心情革命は木の根と同じで、真の愛の革命は花や香りと同じです。花が落ちれば実を結ぶことになりますが、その実が真の人格の革命です。その実は真の家庭で固まります。それが絶対性の革命です。それで原理本体である神様を分からなければ絶対性の革命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ません。絶対性の価値を立てることはできないです。

私たちが成し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家庭の重要な革命はこのような絶対性の革命です。原理本体とともに絶対性を教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アダム、エバがエデンの園でよくできずに天地が開闢したので、それを再び原状で変えておくためには神様をまさに迎えて絶対性の価値観を立てなくてははいけません。